

사회과학논총

제 22집 2호

2019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목 차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성과 학령별 설명요인 비교 연구 정소희 · 이성식	1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삶의 적응에 따른 전이학습 경험 의미 양정옥	31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PAI 반응 박경서 · 박은영 · 김지혜 · 홍상환	6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제설정효과 분석	박웅기 87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 현상과 즐거움 경험 분석 - 40대 여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활용 -	한예진 103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성과 학령별 설명요인 비교 연구*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이버비행의 원인을 성과 학령에 따라 비교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해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가정, 학교, 친구, 기회요인으로 대표되는 낮은 자기통제력, 부모애정, 학교 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성별과 학령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접촉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은 대체로 초등학생 저연령 집단에서 유의미한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고연령 집단에서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등학생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고 중학생 집단에서도 특히 남성에게서 매우 유의미했지만 고학령대인 고등학생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

* 본 논문은 정소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하고 재분석하고 정리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송실대학교 석사

*** 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2 사회과학논총

하지 않아 본 연구의 예측대로 청소년 초기에서 남녀 모두에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녀 모두 고등학생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여성에서 다소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의 예측대로 인터넷사용시간과 같은 기회요인은 저연령의 초등학생에서, 특히 남성에서 사이버비행의 주요 설명요인이었다. 부모애정은 초등학생 저연령 그리고 여성에서, 학교적응은 중학생 이후의 남성에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가정과 학교요인의 영향력은 대체로 낮았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비행 방지를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사이버비행,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인터넷사용시간, 성, 학령

I. 서론

정보화시대로 인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로 청소년 연구에서 사이버비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이버비행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있게 되는 지위비행이나 범위반행위로 단순한 욕설에서부터 악성댓글, 명예훼손, 음란물접촉, 사이버성희롱 등의 일련의 비행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비행은 현실과 달라 피해자는 신체적 해는 입지 않으나 사이버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등 여전히 그 심각성이 높으며(이승현 외, 2015) 그 외 몰카나 음란물, 도박, 사기, 불법다운로드 등의 범죄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혀 그 우려가 높다.

사이버비행의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그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도하여 그 원인을 모색하고자 했고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어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 연구들의 결과들은 일관되지 못했는데, 이는 각 연구 별로 각각 다른 분석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이다. 또 어떤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심홍진 외, 2016). 성별이나 학령에 따라 생물학적 또는 발달단계 상의,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이가 있어 비행 원인의 작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하나의 집단 혹은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성과 연령별로 집단을 나누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비행의 설명요인을 성과 학령별로 비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요인을 통합하는 분석을 시도한다. 과거 선행연구들은 특정 이론을 검증하거나 주요 이론의 한두 가지 요인에만 집중하여 단편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그동안의 주요 요인들을 포괄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회생태학적 논의(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해보면 비행행동은 어느 하나의 개인요인이나 환경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환경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환경 등의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사이버비행 연구에서의 주요 개인, 가정, 학교, 친구요인 그리고 기회요인을 다루기로 한다.

4 사회과학논총

남녀의 비행에서 개인,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작용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비행 원인이 어떻게 다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aly and Chesney, 1988; Daigle 외, 2007). 또한,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연령별로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기를 학령별로 분석하는데 이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형성된 개인, 가정, 학교, 친구관계 등의 여러 환경적 변화가 발달과정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 발전이론(Loeber and LeBlanc, 1990)에 근거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통해 개인, 가정, 학교, 친구, 기회요인들이 어떻게 성, 학령별로 상이할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그 요인을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그리고 기회요인으로 구분하여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남녀 성별 이외에 초기, 중기, 후기 집단으로 구분하고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령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비행의 설명요인이 성과 학령별로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자료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해 분석하기로 한다. 사이버비행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그 결과인 비행과의 인과순서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남녀,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별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패널자료로 그 유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이버비행의 대상별 세부적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성과 학령에 따른 사이버비행 원인이 과연 차별적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더욱 효과적인 비행대책 수립에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에 목적을 갖는다.

II. 이론적 논의

1. 사이버비행의 주요 요인들

사이버비행의 주요 개인요인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제시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Gottfredson and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 의해 제기된 개인성향에 대한 개념으로, 인생 초기의 부적절한 사회화로 인해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유일한 직접적 설명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이버비행은 우연한 상황에서 순간 만족을 위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비행을 저지를 수 있고 익명의 특성으로 이용자들이 발각의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에서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사이버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했다(이경남과 하연미, 2004; 민수홍, 2005; 이성식, 2006).

가정요인으로, 가정은 발달과정에서 최초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1차 집단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초기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같은 구조적 측면과 부모의 양육태도, 훈육방식 등의 기능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때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김준호 외, 2013). 그 중에서도 가정의 다른 요인들보다도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적 유대, 그리고 청소년들이 부모에 갖는 애착은 비행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뤄져왔다(Cernkovich and Giordano, 1987; 전영실, 2007). 부모애착 등은 사이버비행에서도 주요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성동규 외, 2006; 정혜원과 정동우, 2012),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그 작용이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성식, 2006).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이외에 학교와 친구 등 다른 사회환경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학업부진이나 부적응, 그리고 교우관계 등 일상에서의 긴장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Agnew, 1992; Patchin and Hinduja, 2011). 이외에도 사회유대이론에서 학교요인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애착, 공부나 학교활동

6 사회과학논총

등에 대한 관여와 참여 등 사회통제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비행을 통제하는 역할로 설명되기도 한다(Hirschi, 1969).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학교긴장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순래와 이경상, 2010). 그리고 사이버비행에 대한 학교긴장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도 있다(이성식과 전신현, 2012). 그중에서도 학교부적응의 영향이 중요해 이성식(2004)은 부모관계와 학업부적응, 친구관계에서 생겨나는 긴장 중에서도 학업부적응에서 비롯되는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가장 많이 유발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사이버비행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다음의 친구요인으로,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은 친구요인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룬 대표적인 이론이며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될 경우 범위반에 호의적인 태도를 학습하게 되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War and Stafford, 1991). 그리고 사이버비행 논의에서도 차별접촉과 비행태도의 영향력은 주로 사이버폭력(이성식, 2006; 남상인과 권남희, 2013)이나 저작권침해(Higgins and Makin, 2004; Higgins and Wilson, 2006) 등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기회요인으로는 여러 요인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인터넷사용시간이 주요요인이 된다. 비행기회이론은 고전주의 이론으로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주목한다. 범죄기회이론에 따르면 우연한 범죄위험에의 노출은 그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해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Osgood 외, 1996; Spano and Freilich, 2009). 사이버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인터넷중독의 아이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연한 범죄기회에 더 노출됨으로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이성식, 2014a; 이성식과 전신현, 2017). 사이버비행에서 주요 이론들의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이성식(2014)은 개인성향과 위반자친구나 태도의 영향보다도 인터넷사용시간 등의 기회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2. 성별 연구

앞서 청소년비행의 여러 설명요인들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 요인별로 보면 우선 개인요인은 성별에 관계 없이 일정한 정도로 비행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자 내면의 성향이어서 환경요인에 비해 자의적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Gottfredson and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남녀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을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이 남성의 비행을 잘 설명한다는 연구가 있고(Burton 외, 1998; 김선희와 김경연, 2001), 여성의 비행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지만(Tibbetts and Herz, 1996), 대체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녀에게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Daigle 외, 2007). 사이버비행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남녀 모두에서 유사하게 중요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성식, 2014b).

가정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Cernkovich and Giordano, 1987). 전통적 성역할 관점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에 순응하고 동조하기를 요구받고 비교적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비행수준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역할 관점에 따라 여성에게는 부모유대와 관계적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이성식, 2004) 가정요인으로 부모요인은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욱 유의미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 대신 학교요인으로 학교적응은 남성의 비행에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전통적 성역할 관점에 따르면 관계지향적인 여성과 달리 남성은 물질적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일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성취지향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학업요인이나 학교와 공부에서의 좌절로 인한 긴장과 충격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홍태경과 류준혁, 2011). 그러나 청소년비행에 대한 학교요인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Smith and Patenoster, 1987)와, 남성보다 여성의 비행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Rosenbaum and Lasley, 1990)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비행에서 학업과 관련한 긴장요인은 비교적 남성의 비행과 더욱 연관된 요인임을 밝힌 연구(홍영수와 김동기, 2011; 이성식 외, 2018)가 있는 점에서 학교긴장의 영향력은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친구요인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준호와 김은경, 1995; 최재용 외, 2014). 그렇지만 비행친구의 영향이 남성의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연구가 있지만(Smith and Paternoster, 1987; Piquero 외, 2005),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여성에게 비교적 강하다는 결과가 많다(Daigle 외, 2007; 홍태경과 류준혁, 2011). 남성은 광범위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데 비해, 여성은 적은 인원의 친구와 아주 친밀하게 사귀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그 친구가 비행친구일 경우 그 영향력이 커서 그에 따른 비행태도 학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Haynie 외, 2014). 실제로 사이버폭력 연구에서도 친구의 영향은 여성에서 더 크다는 연구가 있다(Marcum 외, 2014).

기회요인으로 인터넷사용시간의 작용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우연한 기회라도 스스로 혹은 여러 통제작용으로 비행을 하지 않지만, 남성은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Augustyn and McGloin(2013)은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는 행동과 같은 기회요인의 영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Marcum과 동료들(2014)은 여성은 내외적 통제력에 의해 비행가능성이 낮은 반면, 남성은 우연한 기회가 있으면 남성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비행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비행에 대한 기회요인의 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학령별 연구

앞서 제시한 그와 같은 설명요인들의 영향에서 연령 혹은 학령별 차이가 있을까? 개인요인으로 제시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저연령 집단에서 강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Paternoster and Brame, 1997; Chapple, 2005). 실제로 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에서는 자기통제력의 성향이 취학전 어려서 형성된다고 주장했는데 저연령대의 아동집단의 경우는 성장기의 청소년과는 달리 아직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

려서 형성된 개인성향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성향의 영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경의 영향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따라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Thornberry(1987)의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초기 청소년은 부모와의 유대나 애착 같은 가정요인이 중요하지만, 중기부터는 활동 중심지가 가정에서 학교, 친구집단으로 점차 이동해 부모보다 학교나 또래 친구들에 더욱 의존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학교와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Thornberry와 동료들(1991)은 그의 주장대로 저연령층에서는 부모관련 요인이 중요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요인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요인의 부모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저연령 집단에서 유의미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철, 2009; 전신현 외, 2010). 이철(2009)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비행원인 변화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의 지위비행에의 영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꾸준히 나타났지만, 부모애착의 중비행에 대한 영향에서는 아동기에 강하다가 청소년기에는 사라졌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전신현과 동료들(2010)은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학령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초기에서 후기로 넘어갈수록 가정 및 부모요인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학교요인의 학교적응은 중학생 집단에서부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정혜원, 2010; 이철, 2011; 이성식과 전신현, 2012). 이철(2011)은 초, 중, 고등학생 패널자료로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요인의 비행 영향은 중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혜원(2010)의 중학생 대상 패널 연구에서도 학업긴장이 사이버비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패널자료를 사용한 이성식과 전신현(2012)의 연구에서도 학업긴장이 사이버비행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친구요인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고학령 집단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전신현 외, 2010; 이철, 2011).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분석한 전신현과 동료들(2010)은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모두에게 비행친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면서도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후기로 갈수록 강화됨을 밝혔다.

이철(2011) 또한 비행친구의 비행에 대한 영향이 중후기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김경은(2013)은 중고등학생대상 사이버비행 연구에서 비행친구가 사이버폭력에 주요 요인임을 제시했는데, 그렇지만 정여진과 손서희(2017)는 중학생대상 연구에서도 비행친구가 사이버폭력에 주요 설명요인임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기회요인의 인터넷사용시간은 저연령 집단에서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성식, 2005; 이성식과 전신현, 2017).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은 경우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다 최근에 청소년의 일상긴장으로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고 인터넷사용시간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살펴본 이성식과 전신현(2017)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인터넷사용시간이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III.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이버비행의 설명을 위해 기존의 주요 개인, 가정, 학교, 친구 그리고 기회요인으로, 개인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가정요인으로 부모애정, 학교요인은 학교적응, 친구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기회요인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을 남성과 여성의 성별,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령으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로 한다. 앞선 기존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성별로 보면 개인요인으로 개인성향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유의미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남녀 성역할에 따라 부모애정은 여성에게 더욱 유의미할 것이고, 학교적응은 남성에게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고 본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기존 연구에서 볼 때 일관적이지 않고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있지만, 그 영향이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다소 더 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 기회요인이 남성에게 더 큰 것으로 볼 때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력은 남성에게 더욱 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학령별로는 초기 청소년에서는 개인요인이, 성장하면서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환경적 변화가 중요한데, 가정, 학교, 친구의 영향도 연령별로 다를 것으로 본다.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기 초등학교 청소년에게 더 중요하게, 가정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정관계는 청소년 초기에 중요하고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학교적응 등 학교요인은 대체로 중학생 이후에,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터넷사용시간은 초기 청소년에게 더욱 유의미할 것이고 고연령 집단은 단순히 비행기회에 노출된다고 해서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초등학생, 남녀 중학생, 남녀 고등학생 이렇게 성과 학령별로 여섯 집단으로 나눠 앞서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앞

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은 남녀 초등학생에서, 부모애정은 여성 그리고 초등학생에서, 학교적응은 남성 그리고 중학생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녀 고등학생 모두 그리고 특히 여자 고등학생에게서, 그리고 인터넷사용시간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은 남자 초등학생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은 청소년 초기 남녀 초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가설 2: 부모애정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은 청소년 초기 여자 초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가설 3: 학교적응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은 청소년 중기 남자 중학생 이후에서 강할 것이다.

가설 4: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은 청소년 후기 남녀 고등학생, 특히 여자 고등학생에서 강할 것이다.

가설 5: 인터넷사용시간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은 청소년 초기 남자 초등학생에서 강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남녀 그리고 초, 중, 고 학령별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패널자료로 인과분석에 유용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초4학년)에서 6차년도(초6학년)에 참여한 2119명과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년도(중1)에서 5차년도(중2)에 참여한 2092명,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고1)에서 5차년도(고2)에 참여한 2108명이다. 종단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사이버비행의 원인들의 독립변인을 위해 4차년도라는 특정한 차수의 데이터를 선택한 것은 해당 시점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령별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속변인을 위해서는 그 다음 차수인 5차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이버비행이 5차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6차년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6차를

사용하기로 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 중, 고 각각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및 5차,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5차, 중학교 1학년 패널은 4차 및 5차 자료를 사용하여(어떤 문항들은 4차에만 혹은 5차에만 있어 4, 5차를 함께 사용함),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역코딩)’,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역코딩)’,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산하였다(초등학생 $\alpha=.620$, 중학생 $\alpha=.643$, 고등학생 $\alpha=.565$).

부모애정은 초, 중, 고 각각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등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다(초등학생 $\alpha=.839$, 중학생 $\alpha=.830$, 고등학생 $\alpha=.806$).

학교적응은 초, 중, 고 각각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자료를 사용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항목에 해당되는 5개씩의 각 문항들 총 20개의 4점 척도 문항을 합산해 구성하였다(초등학생 $\alpha=.905$, 중학생 $\alpha=.895$, 고등학생 $\alpha=.866$).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초, 중, 고 각각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1차부터 5차 년도까지는 포함되지 않아 6차,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4차, 중학교 1학년 패널은 4차 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1년 동안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13개 비행유형의 행동을 한 친구의 유무로 0=‘없다’, 1=‘있다’로 한 후 모든 문항을 합산해 사용하였다(초등학생 $\alpha=.731$, 중학생 $\alpha=.830$, 고등학생 $\alpha=.754$).

인터넷사용시간은 초, 중, 고 각각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초등학교 4학

년 패널의 4차,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주중과 주말 각각 하루 평균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을 사용해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이용 ‘분’을 구한 뒤 7로 나누어 1일 평균 컴퓨터 이용 ‘분’을 산출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사이버비행은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사이버비행에 대한 문항이 1차부터 5차 년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고, 6차 년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의 6차, 그리고 중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5차, 고등학생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패널은 5차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사이버비행을 살펴보았다. 비행문항으로는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0=‘없다’와 1=‘있다’로 코딩하여 합산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를 이용해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남녀 초, 중, 고등학생 여섯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여기서 독립변인은 조사대상자의 4차 년도인 초4, 중1, 고1 시점에서,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사이버비행은 1년 후인 자료로 초등학교는 실제로 비행조사가 시작된 2년 후인 6학년의 비행, 그리고 중2, 고2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6319명으로 남성은 3268명(51.7%), 여성은 3051명(48.3%)으로 구성되어 남성이 다소 많았으나 비슷했다. 학령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자가 2119명(33.5%), 중학생 대상자가 2092명(33.1%), 고등학생 대상자가 2108명(33.4%)로 학령에 따른 비율도 거의 비슷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5-20 범위에서 초등학생은 9.89, 중학생은 11.246, 고등학생은 11.451로 다소 낮았고 학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정은 4-16 범위에서 초등학생은 13.401, 중학생은 12.665, 고등학생은 11.934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학령이 낮을수록 그 점수가 높았다. 학교적응은 23-80 범위에서 초등학생은 64.968, 중학생은 59.661, 고등학생은 58.540으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학령이 낮을수록 그 점수가 높았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0-13 범위에서 초등학생은 0.387, 중학생은 0.932, 고등학생은 1.223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학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시간은 2.86-531.43 범위에서 초등학생은 56.671, 중학생은 80.646, 고등학생은 80.106으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이용시간이 다소 더 많았으나 고등학생과 큰 차이는 없었다. 사이버비행은 0-6 범위에서 초등학생은 0.152, 중학생은 0.198, 고등학생은 0.233으로 매우 낮았고 학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정, 학교적응, 비행친구접촉, 인터넷사용시간이 사이버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과 학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는 초, 중, 고등학생별로 제시하고 각 학령에서 남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부모애정과 학교적응은 남성에게만 $p < .05$ 수준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성과 여성 모두 $p < .001$ 수준에서, 인터넷사용시간은 남성에게만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남자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애정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 접촉할수록, 인터넷사용시간이 높을수록 사이버비행을 저지르며 이때 베타값을 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 인터넷사용시간,

16 사회과학논총

낮은 자기통제력, 학교적응, 부모애정 순으로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행친구 접촉이 많을수록 더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명수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성	3268	51.7		
	여성	3051	48.3		
	전체	6319	100		
학령	초등학생	2119	33.5		
	중학생	2092	33.1		
	고등학생	2108	33.4		
	전체	6319	100		
낮은 자기통제력	초등학생		9.89	2.590	5-19
	중학생		11.246	2.512	5-20
	고등학생		11.451	2.247	5-19
부모애정	초등학생		13.401	2.396	4-16
	중학생		12.665	2.303	4-16
	고등학생		11.934	2.209	4-16
학교적응	초등학생		64.968	8.828	29-80
	중학생		59.661	8.613	23-80
	고등학생		58.540	7.340	27-80
비행친구 접촉	초등학생		.387	1.079	0-13
	중학생		.932	1.911	0-13
	고등학생		1.223	1.770	0-13
인터넷사용 시간	초등학생		56.671	39.781	2.86-334.29
	중학생		80.646	60.809	2.86-531.43
	고등학생		80.106	64.507	2.86-471.43
사이버비행	초등학생		.152	.494	0-5
	중학생		.198	.561	0-5
	고등학생		.233	.564	0-6

다음으로 중학생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남성에서는 $p < .001$, 여성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성에서는 $p < .05$ (여성에서는 $p < .10$ 수준에서 유의미했음), 인터넷사용시간은 여성에게만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남자 중학생의 경

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행친구와 접촉할수록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여자 중학생의 경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높을수록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했다. 남자 중학생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여자 중학생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이 가장 컸다. 남녀 모두 부모애정과 학교적응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성과 여성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인터넷사용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남녀 고등학생의 경우 서로 유사하여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리고 인터넷사용시간이 높을수록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부모애정과 학교적응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초등학생의 사이버비행 설명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비행			
	남성		여성	
	b		b	
낮은 자기통제력	.019*	.086	.016*	.091
부모애정	.020*	.080	-.001	-.005
학교적응	.007*	.084	.002	.027
비행친구 접촉	.153***	.295	.102***	.236
인터넷사용시간	.002***	.115	.000	-.018
R제곱	.134		.071	
F값	22.171***		10.047***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중학생의 사이버비행 설명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비행			
	남성		여성	
	b		b	
낮은 자기통제력	.035***	.139	.019*	.099
부모애정	-.001	-.002	-.003	-.015
학교적응	-.003	-.043	.000	.002
비행친구 접촉	.023*	.074	.018	.068
인터넷사용시간	.001	.055	.001**	.103
R제곱	.043		.031	
F값	6.875***		3.923**	

*p<.05,**p<.01,***p<.001

<표 4> 고등학생의 사이버비행 설명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비행			
	남성		여성	
	b		b	
낮은 자기통제력	.014	.047	.002	.010
부모애정	.007	.023	-.003	-.013
학교적응	-.003	-.038	.001	.022
비행친구 접촉	.064***	.176	.046***	.147
인터넷사용시간	.001*	.083	.001*	.082
R제곱	.045		.034	
F값	6.864***		4.343***	

*p<.05,**p<.01,***p<.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낮은 자기통제력은 예상대로 청소년 초기 초등학생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고 고학령대인 고등학생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본 연구의 예측대로 청소년 초기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학생 집단에서도 특히 남성에게서 매우 유의미하였다는 점에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부모애정과 학교적응은 초등학생 남성에게만 유의미하였고 본 예측과 달리 오히려 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부모애정의 영향은 여자 초등학생에서 클 것으로 예측했으나 가설 2는 지지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부모애정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아 본 가설 2를 부분적으로는 지지했다. 학교적응은 중학생 특히 남성에서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3은 지지되지 못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청소년 후기에 그리고 여성에서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예측과 다르게 남녀 모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방법론 측정의 문제일 수 있다.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변인(4차 년도)이 비행 변인(5차 년도)에 비해 선행되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나, 초등학생 집단의 경우자료의 한계로 비행친구와의 접촉 변인(6차 년도)과 비행 변인(6차 년도)이 동일한 년도의 데이터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간의 인과관계 검증결과는 예외사항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정확한 자료 사용 시 중학생에서의 결과처럼 초등학생의 경우도 그 관계가 크지는 않고 낮을 수 있다고 본다면 본 연구의 가설 4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에서 강하게 유의미했고 그 결과는 여성에서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4를 지지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사용시간은 예측대로 초기의 초등학생 그리고 남성에게서 그 영향력이 강했고 학령이 높아짐에 따라 영향력이 점차 약해진다는 점에서 가설 5가 지지되었다. 그런데 고등학생의 높은 학령에서도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은 남녀 모두에서(중학생의 경우는 여성에서도) 유의미하여 가설 5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비행의 원인을 성별과 학령에 따라 비교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해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요인들을 적용하였는데, 개인요인으로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정, 학교, 친구요인으로서는 부모애정, 학교적응,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사용하였고, 기회요인으로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터넷사용시간 변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체로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비행친구와 많이 접촉하거나,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모애정과 학교적응은 예측과 다르게 남자 초등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정(+)적인 방향으로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지만 대체로 가정과 학교요인의 영향력은 낮았다. 성별과 학령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은 대체로 저연령 집단에서 유의미한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고연령 집단에서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등학생 남녀 모두에게 유의미하였고 중학생 집단에서도 특히 남성에서 매우 유의미했지만 고학령대인 고등학생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본 연구의 예측대로 청소년 초기에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녀 모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방법론 측정의 문제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예측대로 청소년 후기 고등학생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서 그 영향은 남녀 모두에서 강하게 유의미해 여성에서 다소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예측대로 인터넷사용시간과 같은 기회요인은 저연령의 초등학생에서, 특히 남성에서 사이버비행의 주요 설명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은 남녀 고등학생에서도 그 영향이 약하지만 유의미했고, 여자 중학생에서도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 이유가 명확치 않지만 사이버비행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애정과 학교적응은 초등학생 남성에서만 유의미하였고 본 예측과 달리

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성식과 전신현(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은 현실비행 가능성은 낮지만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 것을 보면 본 연구에서 정(+)적 관계의 결과는 그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업기대에 부응하려는 남자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는 좋지만 그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p < .05$ 수준에서만 나타나 큰 영향력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예측대로 부모애정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적응은 중학생에게 특히 남성에서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남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현실세계에서는 부모나 학교요인이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과 달리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로부터 자유로와 부모나 학교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향력이 낮은 것은 그 영향이 비행친구나 인터넷사용시간 등을 통해 매개되어 간접적이어서 그 직접적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관관계표를 보면 그 영향은 유의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줄이고, 인터넷사용시간을 낮추며, 낮은 자기통제력을 극복하게 하는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성, 학령별로 달라 자기통제력은 어려서부터 키우는 것이 좋고 그런 점에서 일반이론의 주장대로 어려서 부모의 양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방법 등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사용시간의 조절 또한 모든 학령에서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필요한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친구의 영향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그 영향이 커지는 바, 고학령일수록 건전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소년에게 적절한 놀이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마땅히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자기통제력의 조절은 더욱 어려워지고, 비행친구 집단이 형성되어 차별적으로 접촉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이버공간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독립변인을 개인요인과 가정, 학교, 친구요인, 그리고 기회요인으로 분류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했다. 그리고 사이버비행의 원인에 성별과 학령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았고 여러 요인별로 비교하여 다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요인들의 영향이 남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학령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비행 해결에 있어 학령별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R제곱값을 보면 그 이유가 표본수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설명력은 대체로 낮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본 연구는 패널조사자료의 변인이 제한적이었음) 좀 더 새로운 변인들을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록 가정과 학교요인의 영향력은 낮았지만, 그 영향이 간접적일 수 있어 향후에는 구조적 인과모델로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도 있었다. 또한, 향후에는 사이버비행 유형별로도 더욱더 세부적으로 그 영향을 다루는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은. 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비행친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9(4): 133-159.
- 김선희,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준호,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박정선,이동원,박철현. 2013. 『청소년비행론 제3판』. 서울: 청목출판사.
- 남상인,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민수홍. 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19: 79-129.
- 심홍진,한은영,박병선,박남기. 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경남,하연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5(5): 127-143.
- 이성식. 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 『한국공안행정학회지』. 18: 273-299.
- _____. 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 179-200.
- _____. 2014a. “대학생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 네 이론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145-168.
- _____. 2014b. “사이버비행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유대 및 차별접촉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와 그 성별 차이.” 『청소년학연구』. 21(2): 279-298.

이성식,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23(3): 293-318.

이성식,전신현. 2017. “청소년의 일상긴장과 인터넷사용시간의 사이버비행 가해와 피해에의 영향: 세 연령층 비교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9: 37-59.

이성식,전신현,정소희. 2018. “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에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및 이용중독을 통한 모델구성과 검증: 성과 학령별 네 집단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9(4): 89-112.

이순래,이경상. 2010. “생활긴장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환경에 대한 위계적 선형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4): 5-32.

이승현,강지현,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철. 2009.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 인과관계에 관한 발전론적 연구: 손베리 모델의 부분 검증.” 『한국사회과학논총』. 29(1): 177-204.

전신현,김원경,황성현. 2010. “청소년 가출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접근: 손베리 이론의 부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1(4): 31-50.

전영실. 2007.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1): 278-304.

정여진,손서희. 2017.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언어폭력 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2): 1-16.

정혜원. 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263-288.

정혜원,정동우. 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1-23.

최재용,한보영,이운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1): 35-65.

홍영수,김동기.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127-148.

홍태경,류준혁. 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 8(3): 113-138.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Augustyn, M.B. and J.M. McGloin. 2013. "The Risk of Informal Socializing with Peers: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across Predatory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Justice Quarterly*. 30(1): 117-143.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urton, V.S.Jr., F.T. Cullen, T.D. Evans, L.F. Alarid, and R.G. Dunaway. 1998. "Gender, Self-Control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123-147.

Cernkovich, S.A. and P.C. Giordano.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19.

Chapple, C.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 89-106.

Daigle, L.E., F.T. Cullen, and J.P. Wright.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3): 254-286.

Daly, K. and M. Chesney-Lind. 1988. "Feminism and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5: 497-538.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Haynie, D., N.J. Doogan, and B. Soller. 2014. "Gender, Friendship Networks and Delinquency: A Dynamic Network." *Criminology*. 52(4): 688-722.

Higgins, G.E. and D.A. Makin. 2004. "Does Social Learning Theory Condition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on College Student's Software Piracy?" *Journal of Economic Crime Management*. 2: 1-22.

Higgins, G.E. and A.L. Wilson. 2006. "Low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Social Learning Theory in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Software.” *Security Journal*. 19: 75-92.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Free Press.

Loeber, R. and M. LeBlanc.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cum, C.D., G.E. Higgins, T.L. Freiburger, and M.L. Ricketts. 2014. “Exploration of the Cyberbullying Victim/Offender Overlap by Sex.”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3): 538-548.

Mazerolle, P. 1998. “Gender,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15: 65-91.

Osgood, D.W., J.K. Wilson, P.M. O’Malley, J.G. Bachman, and L.D. Johnston.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635-655.

Patchin, J.W. and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and Society*. 43(2): 727-751.

Paternoster, R. and R. Brame.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 49-84.

Piquero, N.L., L. Gover, J. Macdonald, and A. Piquero. 2005.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Does Gender Matters?” *Youth and Society*. 36: 251-275.

Rosenbaum, J.L. and J.R. Lasley. 1990. “School, Community Context, and Delinquency: Rethinking the Gender Gap.” *Justice Quarterly*. 7(3): 493-513.

Smith, D. A. and R. Paternoster. 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s and Evid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2): 140-172.

Spano, R. and Freilich, J.D. 2009. “An Assessment of the Empirical Validity and Conceptualization of Individual Level Multivariate Studies of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Published from 1995 to 2005.”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305-314.

Tibbetts, S. G. and D.C. Herz. 1996.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of Social Control and Rational Choice." *Deviant Behavior*. 17, 183-208.

Thornberry, T.P. 1987. "Towards and Interactio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1.

Thornberry, T.P., Lizzote. A., Krohn, M.D., Farnworth, M. and Jang, S.J. 1991. "Testing Interactional Theory: An Examination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and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3-35.

War, M. and M. Stafford.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논문접수 2019. 9. 25 ; 심사완료 2019. 10. 30 ; 게재확정 2019. 11. 11]

<Abstract>

Explanatory Factors for Cyber Delinquency across Gender and School Age Groups

Jung, So-hee*

Lee, Seong-sik**

This study tries to find explanatory factors for cyber-delinquency across gender and school age groups. This study analyses data from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attachment to parents, adjustment to school,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internet use time across male and femal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re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is significa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s significant in high school students.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is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it is not significant in high school students, even though it is significant i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s the most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it does not support hypothesis that its effect will be larger in female. It i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internet use time as a opportunity fact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yber-delinquency in especially 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family and school factor are not significant, even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s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though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of attachment to parents is larger in femal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is larger in male and middle school students. Implication of results are discussed for prevention of cyber-delinquency.

Key Words: Cyber-delinquency, Low Self-control,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nternet Use Time, Gender, School Age Groups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삶의 적응에 따른 전이학습 경험 의미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은 공직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삶의 적응에 따른 전이학습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특히 은퇴과정 중 개인적·사회적 심리적응과정, 학습 경험 형성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자기성찰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삶의 적응과 전이학습 경험에 있어 현상의 본질과 구체적으로 경험한 개별적인 대상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의 역동을 겪어내고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사고의 전환, 의미지각의 전환을 경험해 왔다. 생애동안 경험한 일련의 의미 단위(meaning scheme)의 변화들을 보면, 은퇴 준비 경험학습을 통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면서 일에 대한 그들의 가치기준을 성과, 지적 추구, 업무적 성과에서 인간 자체에 대한 배려로 전환

* 숭실대학교 박사 수료, 남양주가족상담센터 소장, 찬샘평생교육원장

하면서 자아실현과 봉사활동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자 했다. 또한 가족과 타인에게 기쁨주고 행복하게 통합하는 삶, 멘토링 활동, 나누는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은 ‘준비된 공직은퇴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공직은퇴자들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의 심리적 적응과정이 연계되어 있었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적 관점에서 ‘공직은퇴자’는 아동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성장과 변화를 거치는 생애 경험과정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전문자원 활동가, 멘토 역할을 기대해 보는데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 은퇴시대에 공직 베이비부머의 인적자원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보장되는 평생교육의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더욱 활발한 정책적 논의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전이학습, 전환적 성장 경험, 공직은퇴자

I. 서론

베이비부머가 ‘노인’ 세대로 편입되면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9%(통계청, 2019)인 700여만 명이 65세를 넘어섰다. 이처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공직은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이전 시대 노인과 다르게 자신이 생애동안 추진해 오던 일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주력한다. 또한 나이 들어 노약해지면 요양원에서 무력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변함없는 삶을 영위하려는 ‘자신의 장소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를 추구하려 한다. 평범하고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직업전선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삶의 과제들을 은퇴 후 제 2의 삶, 제 3의 삶에서 자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프리드먼은 ‘앙코르커리어(Encore Career)’를 제안하였는데 생애과정에서 은퇴 후 다시 한 번 직업을 가져보자는 것으로 ‘인생 2모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기량을 수용하는 사회에서 인생 3모작, 4모작 까지도 수행해 내면서 황혼기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이 누구보다 지혜롭게 영위해나가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호모 사피엔스와 적절하게 ‘소비할 줄 아는 인간’

이란 의미의 호모 컨슈머리쿠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가운데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생애과정 가운데 노후에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인 준비과정은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에 정년퇴직제도가 도입되어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경제적·사회적 고풍을 가져오고 있다(배문조, 2007). 2012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에 편입되는 2020년대가 되면 노동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해지고 국가 주도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추세는 현실적인 문제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서 은퇴 후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인생 1막에서 경험해 온 공직의 삶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떨어진 반면, 고령자로서 업무의 제한성을 인식하게 된다.

공직은퇴자의 직무 경험에 의한 사회적 자본은 은퇴 후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연결하는 지역사회의 가교적 역할(이윤진, 2013)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은퇴는 인구학적 전환시대에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은퇴자 자신에게도 노년기의 자아통합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공직은퇴자의 인적자원이 사회적으로 재생산 되어질 것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교직은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기 학생을 가르쳐 온 사람들로 지역사회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공무원생활 경험 후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을 장기간 운영해온 연구자는 은퇴과정에서 경험한 학습프로그램이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삶과 연계되어있다고 보고, 교육직에서 공직으로 일해 온 은퇴자 중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면서 공직자로서의 경험이 어떻게 전환되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이 학습적 관점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적 관점에서 ‘공직은퇴자’는 아동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성장과 변화를 거치는 생애 경험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기대해 보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파악하고,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대에 성공적인 사회 대응정책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가 있으며 공직 은퇴자들에게 맞는 환경과 직업훈련 등 제도적인 기반마련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이다(정순돌, 박현주, 오은정, 2013). 특히 은퇴 후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상황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자기 성찰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전환적인 삶의 관점에서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평생학습 활동 참여의 전환적 의미는 인생 2모작에 대해 새롭게 조망해 볼 가치가 기대된다. 사회적·물리적 상황에서도 각각의 개인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의미체계를 재구성하고 재의미화(최라영, 김성우, 이성엽, 2018)하고, 개인의 삶의 맥락에 따라, 혹은 사회적 조건들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전문직 경력을 가진 공직은퇴 베이비부머 개개인이 ‘은퇴’라는 변화 상황에서 교육, 창업, 사회봉사 등 전반적인 삶과 은퇴 후 전환되는 삶의 과정에서 그들의 은퇴적응 노력이 어떤 의미로 탐색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삶의 적응에 따른 전이학습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공직은퇴를 한 베이비부머의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응과정은 어떠한가?
- 둘째,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은퇴과정 중 학습경험 형성의 과정은 어떠한가?
- 셋째, 공직은퇴를 한 베이비부머의 학습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출산률이 급증한 1955년을 시작으로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된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며, 하나의 코호트로서 정치, 문화, 경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하여 대다수의 연구는 한국전쟁 종료 직후 출산 붐이 시작된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이루어진 1963년 까지 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규정

하였다(최은영, 최혜경, 2015).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시기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 정의한다면, 통계청(2016)에 의하여 1968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을 2차 베이비부머세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용하, 임성은, 2011). 1968년에서 1974년을 2차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할 수 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0대가족제도하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쳤고, 1970-80년대 산업화물결에 따라 핵가족체제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일선에서 경험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자녀는 정보화세대로 급격한 가치관 차이를 가진다. 이런 사회경제적 격변기에 노출된 베이비부머를 ‘깁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일컫기도 한다(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퇴직 연령 만55세에 도달하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어(양의주, 조은숙, 고은숙, 하정, 2016) ‘은퇴’는 직업의 중단으로 보는데 인간은 일을 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낸다고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소득증대와 사회기반이 확충된 상황에서 성장기회와 안정감을 누려왔고 외환위기를 겪어냄으로써 삶의 의지와 욕구가 더욱 높아진 셈이다. 2018년은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썰물퇴직’의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일과 자기계발을 통해 소득증대와 성장기회로 개인적 성취를 이뤄냈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자긍심이 매우 큰 집단이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개인의 안녕과 삶의 새로운 질을 선택하고 주도해 나갈 요인이 있음을 지목하게 된다(전찬호, 진성미,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은 각 시대의 경제적인 난관과 정치적 혼동을 거치면서 국가와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공헌으로 경제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그들은 교육 및 사회, 문화적 수준이 높은 거대 인구집단체계로 형성(양의주 외, 2016)되어 있다. 이전 세대와 견주어 부모 부양의 전통적 관습이 적용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비 붐 세대는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킬 은퇴 후의 사회문화적 삶의 가치 변화에 대한 적응에 혼란을 겪으며,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긴 노년기, 즉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김용하, 임성은, 2011).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생활의지가 이전세대에 비하여 크므로 은퇴 후 노년기에 대하여 인생 3모작에 대한 기대와 성취의도가 매우 강하다. 베이비부머와 고령자의 교육정도별 취업률은 중졸이하는 64.7%, 고졸이 71.1%, 초대 졸 이상

은 78.5%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1차 베이비부머세대는 생애주기마다 급변하는 사회정치적 성장환경에서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시국상황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수출과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을 이루어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치열한 생존경쟁가운데 성장한 특성을 갖고 있어 1차 베이비부머세대의 성장환경에 대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장환경

구분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성장 배경	· 3·15부정선거, 4·19 혁명 발발, 5·16 군사혁명 · 6·3 한일회담반대 학생시위사태, 7·4 남북공동성명 · 유신독재체제, 베트남 전쟁
경제적 성장 배경	· 제1·2·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수출 1·100억 달러 달성 · 1차 오일쇼크, 중동 건설시장 진출
사회문화적 성장 배경	·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도, 고교 평준화 제도, 서울지하철 개통 · 의료보험제도 도입, 컬러 TV출시, 프로야구단 출범 · 대학입시 학력고사, 국민연금제도 도입, IMF 외환위기, 월드컵, 금융위기

출처: 송양민(2010), pp 4-11.

1차 베이비부머세대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성장환경 등 다양한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 구별되므로 새로운 각도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미숙, 정희진, 김태형, 장희익, 유경, 남경아, 2016). 1차 베이비부머세대 중 많은 인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높은 교육수준과 일 경험으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은퇴 이후 적극적인 소비계층인 동시에 현업에 종사하길 희망하고 있다. 잠재된 사회적 자본에 의한 사회참여욕구가 다양한 서울시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에 대한 특성을 <표 2>와 같다.

<표 2> 서울시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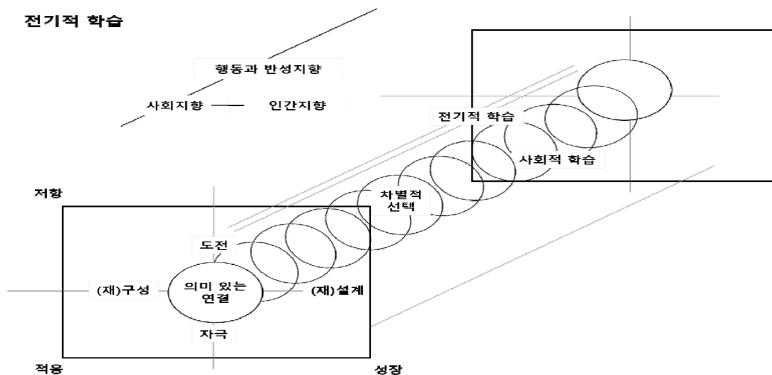
구분	사회문화경제학적 요인
일반 현황	15년 말 현재 서울 142만 명 (14.2%) /전국 714만 명 (14.3%) 고학력자 : 고교 이상 70% (고교 44,전문대 이상 24.8) 남성의 99.9%, 여성 91.4%가 경제활동 경험 보유
	→경제,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사회적, 영향력 정책 중요성 →은퇴 이후 높은 수준의 근로능력 의지 보유

소득 자산	가구 월평균 소득 :423.4만원, 가구당 자산규모 : 평균 3.3억 보험, 저축 등 미래 불확실성 대비 : 79.7 %
	→은퇴이후 적극적 소비 계층으로 전향될 잠재력 보유 →각종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기반 조성 필요
노후 준비	63.9%정도 노후에 직업유지 의사표현, 70%가 현업과 유사한 일 선호 평균 은퇴 연령 52.6세→ 현업 중단 이후 무대책 83.4 %
	→이른 은퇴시기와 고령화 사회를 동시에 맞이하는 위기의 시대 →은퇴 이후 연금지급 시기까지 경제적 공백 문제 해결필요
사회 활동	노후 여가의 중요성 인식 : 83.7% 노후에 자원봉사 참여의사 : 43.9%
	→수명연장 대비 낮은 은퇴연령으로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편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여가, 교육 등 참여 프로그램 필요

출처: 최제훈(2018)

2. 전이학습

인간의 보편적 생애과정과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는 전환적 맥락으로서 기대와 대응, 재조직에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전이학습적인 개인적·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직은퇴 베이비부머도 경력을 이동하는 상황이 인생 2모작으로 가는 새로운 상징적 공간에서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전이학습 관점이 적용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때때로 차별적인 현실과 맞부딪힐 때 저항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전략적인 전이학습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출처: Stroobants, Jans, & Wildemeersch(2001), p. 118.

<그림 1> 전이학습 프레임워크

은퇴 상황이라는 새로운 현실 안에서 유의미하게 연계된 적응, 차별, 저항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기본 전략은 이상적이고 논의할 만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 공직은퇴 베이비부머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하며 역동적일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향은 반성지향적인 성찰에서 이루어진다. 내적인 신념이 확고해질 때 행동하게 되고 그것은 반성적성찰에 따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찰은 행위 지향적(action-oriented)이며 역사적으로 내재된(historically embedded) 것이다. 성찰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고’도 아니다(이희수, 정미영, 2010). 성찰은 행위에의 지향을 표현하고,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의 역사적 상황에서 사고와 행위간의 관계를 사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찰은 순수하게 개인적 과정(purely individual process)이 아니라(이희수, 정미영, 2010), 언어구사와 같은 사회적 과정이다. 성찰은 메커니즘이나 심사숙고처럼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다. 성찰은 사회적 관계를 가정하고 예시하고(이희수, 정미영, 2010) 인간의 이해관계(interests)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성찰은 정치적인 것이고 가치에서 자유롭거나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특정한 인간, 사회, 문화, 정치적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지원하는 것(이희수, 정미영, 2010)이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섭렵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자아성찰(self reflection)은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다. 성인 학습은 성인의 직업, 생활, 자기계발 등 성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에 기반 하여 전개된다. 학습자의 경험과 새로운 학습을 연관시키는 것은 Lindeman과 Knowles 이후 성인교육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전략이다(황운주, 2015). 성인학습은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경험이며, 경험학습의 핵심은 자아성찰(reflection) 과정에 있다. Garrick, and Rhodes(1998)에 따르면 인본주의적 성인교육이론에서 성찰은 경험과 학습을 연계해주는 다리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형식학습보다 업무 수행 과정의 학습 또는 타인의 일을 관찰하고 코칭 또는 멘토링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김혜영, 이희수, 2009; 안동윤, 2006).이 대두되고 있다. 공직은퇴 베이비부머들이 무형식적인 성찰학습 활동이 조성되면,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활동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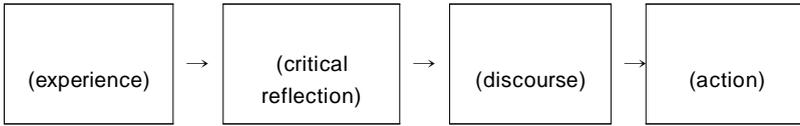
3. 전환적 성장경험

다양한 직업적 배경과 능력을 가진 은퇴자들이 은퇴 후 각 개인의 경력과 능력에 맞게 맞춤형 자원봉사활동(한선희, 임세영, 2016)을 추구하는 삶은 전환적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성장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성인학습이라는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고자 과거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사용하여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수정하여 구성해 가는 것이 전환학습이다.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은 인간과 사회 가운데 전환적인 변화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적인 비판적 성찰행위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탈맥락적인 학습과 변화의 개념을 초월하게 된다.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평생학습과정에서 사회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관점에 연계되는 대안적인 접근방법은 전환학습의 핵심 개념으로 성찰과 비판적 성찰과정이다. 성찰적 실천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목표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인 학습변화의 잠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Vince, 2002).

경험은 전환의 계기가 되는 딜레마로서의 경험이다. 전환학습의 주요 핵심 개념은 경험, 비평적 반추, 개인 발달 등을 들 수 있다(김향식, 2010). 성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학습에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데(Knowles, 1980), 이러한 경험이 전환학습의 첫 번째 주요개념이며, 전환학습 과정의 시작이다. 이 과정에 비평적 반추는 두 번째 주요 개념이 되고, 이 비평적 반추를 통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김향식(2010)). 마지막 주요 개념인 개인 발달은 선천적인 것과 과정의 결과를 포함하는데, 전환에 필수적인 비평적 사고의 가능성은 그 자체가 발달적이다(김향식, 2010). 성인발달과 전환학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개인발달의 중심 과정을 이루게 되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삶 과정이 공직 은퇴 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데 그 의미가 형성된다.

공직 은퇴자의 평생학습적 전환학습의 개념은 학업공백 이후 대학교에 재입학하는 여성들이 증가했던 사례에 관한 Mezirow(1991)의 연구에 의해 소개되었다. Mezirow는 전환학습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준거틀에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라 정의하였으며 준거틀은 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가정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전환학습 과정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학습의 세 가지 중요한 단계로서 Merriam, Caffarella, and Baumgartner(2006)는 경험(experience),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담론(discourse) 행동(action)을 제시하였다



출처: Mezirow, 1991에서 재구성함. p.215-243

<그림 2> Mezirow의 전환학습 단계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공직 은퇴 베이비부머 삶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은퇴준비를 위한 평생학습의 인지적 과정’에 의해 개인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학습을 통해 기본적 가치와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전환학습으로 볼 때, 학습 이전과 이후에 지적인 성장이 삶을 통해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변화가 주목된다. ‘은퇴’와 같은 생애 사건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경험이 생애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환학습상황에 맞게 된다. 전환학습이란 기존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가정, 신념, 가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의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기존의 사고관점이 더욱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통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황윤주, 이희수, 2015). 공직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경험해 온 학습과 전이된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인증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Michelson(1996)은 이에 대하여, 상황화 된 지식이라는 인식론적 토대로 경험학습의 평가와 인증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분석한 바 있다. Michelson에 따르면 경험과 지식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구성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은 국지적으로 이해관계에 치우쳐 관계적으로 형성된다. 학습경험의 평가인증체제는 결국 다양한 지식의 양상들이 경합하는 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Billett, 2009)는 점에서 은퇴자들의 삶의 문제 해결과 변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전이 학습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4. 공직 베이비부머 은퇴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통계(2018)에 따르면, 2018년도 공무원 퇴직자는 총 37,710명이며, 지난 10여 년 간의 추이를 보면, 평균 30,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매년 퇴직을 한다. 또한, 공무원 퇴직자의 평균 연령은 53.6세로(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18), 베이비부머가 이에 해당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즉, 매년 3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공직자가 은퇴를 하는 것이다. 공직자 중 대학교 이상 졸업 인원은 107,203명(1995년)에서 230,9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행자부, 2016), 석사이상 비율은 3,607명(1995년)에서 22,336명(2014년)으로 약 6배 증가하였다(공무원 인사통계 주요지표, 2015). 따라서 공직은퇴 베이비부머는 높은 학력과 사회문화적 수준에 공무원이라는 강점이 더해진 특수한 집단임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공무원의 인사통계추세에 부응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방안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들이 퇴직이후 하는 일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사회와 개인 가정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김주동, 2012). 반대로, 공직은퇴 베이비부머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모든 의사결정은 크던 작던 간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임도빈, 2002) 공직자들은 업무상 요구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과 의지를 체념하는 등(이문수, 2019) 강한 책임감과 엄격한 성찰을 요구받는다. 공직은퇴자를 향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은퇴자들의 은퇴 경험과 삶의 적응, 전이교육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 중 공직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퇴직자의 재취업(박민정, 2015; 김윤권, 오시영, 2013; 최무현, 2015)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은퇴한 공직자의 리더십(한국행정학회 편집부, 2011)이나 은퇴를 앞둔 공무원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채경선, 김만기, 2018) 등 주제나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다. 공직자의 “삶”에 대해 성찰한 연구는 박남희, 김옥희(2016)가 유일한데, 퇴직 공직자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 개인적인 성격 강점은 자아 통합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Sadler(2000)는 우리 생애를 네 단계로 나누고 중년기를 제3기 인생(the 3rd

age)라 규정하였다. 인생 네 단계 중 중년기인 서드에이지(3rd age)가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며 생활을 위한 단계이다. 제3기 인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면서 은퇴에 대한 관점도 점차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은퇴라는 사건은 은퇴경험자들에게 긍정적 관점에서는 도전이며, 부정적 관점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지된다. 주관적 의미와 영향력의 크기도 다를 수 있지만(Floyd, Haynes, Doll, Winemiller, Lemsky, Burgy, Werle & Heilman, 1992), 은퇴자의 건강과 여가활동 및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던 과거와는 은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기 성찰 현상학적 자료 분석

성찰은 순수하게 ‘내재적인’ 심리학적 과정이기 보다는 행위 지향적(action-oriented)이며 역사적으로 내재된(historically embedded) 현상이다.

‘공직은퇴’라는 현상의 의미와 본질,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해의 조건이고, 이해(verstehen)는 인간 실존 재구성 작업이며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지지하여 자기 성찰적 현상학적 연구의 특성을 살린다. 자기 성찰은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김정규, 2014). 공직은퇴에 대한 현상학적 성찰을 통해 전체와 부분의 순환적인 체험의 구조를 밝히면서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의 순환과정을 확충해 나간다.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귀납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 방법이며 주의 깊은 기술과 대화를 통해 타인을 알게 되는 인식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경험에서의 다양한 견해를 탐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실재를 확장시킬 수 있다(최영희, 1993).

본 연구에서는 공직에 종사하였던 베이비부머의 은퇴 경험과정에서 삶의 적용에 대한 전이학습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경험을 탐색하며 그 경험의 전이학습 의미를 포함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차미란, 2018), 판단정지를 통한 가정과 선 이해(양의주 외, 2016)를 의식하고 공직은퇴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경험이나 행동, 느낌, 생각, 문화, 사회적 현상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질문으로 이해를 돕는다(강미정, 2016).

1단계는 공직은퇴자의 인터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술내용을 정리한다. 2단계는 의미단위(meaning units)를 연구 참여자의 구술 중 의미, 의미 간전이, 차별적 내용이 있는 것(고미화, 2017)으로 구분한다. 3단계는 묵시적(implicit) 표현을 명시적(explicit) 표현으로 전환을 위해 천천히 다시 한 번 질문을 통해, 논리적비약이나 과도한 추상화를 하지 않고 의미단위의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4단계에서는 공통적인 속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구성요소의 경향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경험의 본질을 찾아내었다. 하위구성요소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 상황의 전이학습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삶의 적응에 따른 전이학습의 정확한 실재를 탐색해 보고자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 연구 참여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2017. 9 - 2017. 11. 까지 약 3개월간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2018. 2 -2018. 4. 3개월 동안 인터뷰를 3회씩 실시하게 되었는데, 먼저 전화로 일정과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정한 후 평균 1회에 약 1시간 -1시간 30분간씩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질적인 과학연구의 방법론적 정확성을 취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언급한 진실성,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평가기준을 적용으로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주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은퇴 후 3년 이내의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과정을 참여하는 사람 중 ‘공직은퇴자’로 경험의 유무나 풍부함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통찰력 있는 참여자로 남녀 6명을 목적적 표집을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 교육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전이 학습적 관점에서 사회적·개인적으로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되어질 기대가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은퇴 후의 삶은 제 2인생설계 과정이므로 평생학습시대에 더욱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참여한 은퇴자의 학습양상은 학습을 통해 은퇴과

정에서 다양한 학습을 경험한 후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라는 국가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었다. 공직은퇴베이비부머가 개인적·사회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이학습 경험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연구 참여자인 교장 2명, 평교사 2명, 공무원 조기퇴직자 2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범주화하였다(표 3).

<표 3> 은퇴 준비 및 은퇴 후 활동 내용 특성

사례	연령 (성별)	은퇴상태	은퇴 준비 및 은퇴 후 활동내용	은퇴 특성
A	63(남)	은퇴 후 2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상담사	교육직 정년
B	62(남)	은퇴 후 1년	회사 보안직, 부동산 중개업	교육직 정년
C	60(남)	은퇴 후 2년	사회복지사 준비 산업체위탁교육 학습자, 유통업, 합창단원 활동	행정직 정년
D	59(여)	은퇴 후 2년	사회복지사, 가족운영회사 보조 활동	행정직 조기퇴직
E	63(여)	은퇴 후 2년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코칭지도자	교육직 조기퇴직
F	61(여)	은퇴 후 1년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문해지도사, 코칭	교육직 정년 사회복지과 겸임 교수활동

3. 연구의 윤리성

참여자와 인터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김미용, 2014).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닉네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김미용, 2014),

엄격성(rigor)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정도를 의미한다(정영혜, 2010). 첫째, 진실성(truth value)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참여자들이 진실임을 증거 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6명의 참여자들 중 재검토를 허락한 5명에게 분석결과를 확인시켜주고, 그 결과가 은퇴경험이 잘 기술되어 있는지를 질문하고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구성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란 연구 상황 외의 맥락에서 다른

전용성에 의해 평가되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전공교수 1명, 연구 참여자와 여건과 환경이 비슷한 은퇴자 2명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자료 수집의 분석내용이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김미옥, 최정민, 강승원, 2013). 박사 수료 3인과 5회 정도 토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냈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다수 있는 교수 1인에게 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감수를 받은 후 규명된 주제와 본질적 주제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쳤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 과정 중 결과로 드러나는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동료연구자들과 끊임 없이 편견적 시각에 판단중지와 괄호 치기를 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삶이 은퇴 전과 후의 생활과정에서 공직은퇴 후 전환적 삶의 경험의미는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았다. 개인적·사회적 사회적응과정과 학습경험 후의 학습결과는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란 정서로 다양한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전환적 삶의 경험에 대한 학습경험의 본질과 의미구조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학습경험의 본질과 의미구조

학습경험의 본질	범주	하위범주	의미의 단위
은퇴과정	개인적 심리적응과정	미진한 삶의 회한	무기력, 무위도식, 끈적함, 의식주 책임감 압박, 억울함, 아쉬움, 답답함, 좌절, 일기장, 가족 앨범, 알람시계, 공평한 24시간, 동행자, 미소로 관계 트기, 학업 중단, 불효, 박탈감, 배제, 경쟁,
		경력부활과 새로운 과제	목표 성취, 합격, 해결사, 역량 업그레이드, 멘토링
	사회적 적응과정	일상의 적응	문해교사, 믿음생활, 인간관계 연찬, 감사, 상대방 배려, 관계 리더십, 베란다의 야생화, 능력, 가족바라기, 변화의 수용
		긍정적 자기평가	감사하는 삶, 성실함, 긍정적, 자신과의 만남, 기쁨 충만한 삶, 전문직, 낙천가, 가치 실현자, 일할 수 있는 나, 엔터테이너, 노력하는 사람, 도전자
은퇴준비 학습경험 성찰과정	학습경험	경험한 학습의 종류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농업, 식용작물 재배, 음악, 학예회, 여가 공유, 사진 창작활동, 포토아티스트, 일본어 회화, 부동산, 자존감 코칭사, 영어 COS지도자과정,

			공부방 지도자, 생활상담사, 명상
		경험학습 멘토링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코칭전문가, 지인, 고참 선배, 관심사 연결고리, 멘토
	학습 결과 영향	경험학습 과정의 발견	여가활동, 재능과 흥미, 개척, 활력소, 수용성, 연설문 스스로 해결, 효과성, 삶의 여유, 벗어나기, 통쾌함, 배움의 희열, 삶의 즐거움, 일상의 평안, 수월함, 충만
		학습 후 열매달기	만족함, 뿌듯함, 가치 있는 일, 자기 감사, 칭찬, 자존감 고취, 긍정에너지, 의욕, 신명함, 활력, 밝아지는 사회, 전문기술 전수, 맘의 문 열기, 희망, 모델링되기, 경제활동 연계, 전문지식, 미래 준비, 새 역량 커버, 풍성한 삶
	은퇴준비 학습의 결과	학습경험 이후 달라진 점	여유로움, 리더의 모범, CR리더십, 조바심 벗어나기, 다양한 비전, 깨우침, 신중함, 삶의 욕구, 평범한 영역의 확장, 유용한 사람 되기, 준비된 삶, 회고, 멘토 희망, 자아실현 욕구, 경력개발, MVP, 영성 귀의
		연부역강의 도전	여가문화, 눈뜨기, 섭렵하기, 활용하기, 끝나지 않은 길, 새로운 시작, 인생 2모작, 건강관리, 자유롭고 풍요롭기, 기획과 실천, 건강, 생명연장, 무병장수, 생명력
학습전환 의미 찾기	삶의 전환	변화의 발견	아쉬움, 담담함, 사계절 경험, 자랑스러움, 종교생활, 마음수양, 인정, 평범함, 수평과 수직의 분별, 열정, 추진력, 봉사정신, 신뢰성, 모인구성, 정의, 정상적인 일처리, 냉철함, 경직감, 친근감, 당당함, 밝음, 폭넓어짐, 깊어짐
		자아실현	일상의 삶 가꾸기,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 영혼구원, 영광 드러내기, 자기개발, 자족의 삶, 낮아질 수 있는 자아발견
	평생 학습경험	학습경험의 의미	배려, 평생교육, 성장, 나눔, 희망, 평생 잡, 새로운 시작, 제 2의 인생, 수용, 보람 추구, 경제관념, 생애유지, 수용, 정체성 찾음, 존재감 발견, 역할, 실천 의지, 멘토링, 배우자와 조화를 이루는 삶,
		사회에 되감기	봉사활동, 여가활동, 화목, 벗어나기, 인생가이드, 멘토, 성공 가이드, 나눔의 기쁨, 희망, 무궁무진, 행복 확산, 밝음과 긍정, 능력발휘, 신뢰, 충만, 감사, 인간다움

1. 은퇴과정

(1) 개인적 심리적응 과정

은퇴를 경험하는 공직 베이비부머 연구 참여자들은 무기력함, 기회제한의 아쉬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적인 심리적응과정에서 미진한 삶의 회한을 드러내었다.

아무 일 없이 집안에서 3식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A).

능력껏 살아가는 기회에서 벗어난 아쉬움이 커요(연구 참여자 B).
쓸모없는 사람, 자리에서 물러남에 무기력해지는 느낌이에요(연구 참여자 C).
더 버틸 수 없음에 조절감이 커요(연구 참여자 D).
세상적이던 것에서 인간적으로 부부관계의 통합으로 가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F).

극도로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친화적인 내용으로 딸들의 어린 시절 일기장, 친정엄마의 쌍가락지를 보고 모정의 깊었던 추억을 되새겨 보면서 삶의 가치를 환원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변함없는 의식주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에 압담함, 은퇴제도에 의한 연령제한의 억울함, 소속에서 벗어난 아쉬움, 지난 성과를 돌이키며 담담함, 더 버틸 수 없음에 무너지는 심정 등을 미진한 삶의 회한도 남아있다.

공직생활 경험적인 면에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연령제한이 억울함이 남아 있었고, 소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쉽죠. 지금 까지 해온 성과를 돌이키면 담담해요(연구 참여자 A).

공직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경력부활과 새로운 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 A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 도와준 일, 교육전문직 합격, 3년 준비 끝에 승진 시험 합격, 목표를 성취한 것, 과정을 통과한 것, 경제사정과 법률지식 없는 지인의 법적 소송 건 해결한 것, 역량을 한 단계 UP시키는 것, 대청봉에 오른 일, 지리산 완주한 일 등을 언급하였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취감과 삶의 만족감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과제 수행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2) 사회적 심리적응과정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의 적응을 기쁨 충만한 삶, 문해 교사 활동,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활,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감사하는 삶 등으로 적응해 나갔다.

공부 중단, 일 때문에 불효, 승진기회 박탈, 인맥으로 배제될 때, 이기적으

로 경쟁함, 일 때문에 아기가 유산이 되면서 ‘선생이면 뭐해?’하고 후회도 하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연구 참여자 E).

절망적인 심리적 암흑기가 떠오를 만큼 은퇴 과정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삶이되기 시작하였고 댄스 스포츠, 배드민턴, 자전거로 전국일주,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면서 업무 중에 체력단련에 소홀했던 아쉬움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하나님 말씀 통찰, 자신과의 만남을 새롭게 경험해 보려고 애쓰면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면이 유달라 보인다. ‘공직은퇴’를 하지만 전문직이었던 자신,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할 수 있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도전감과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고 있었다.

2. 은퇴준비 전이학습 형성과정

(1) 전이학습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습 중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면서 ‘은퇴’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공동체 나눔에서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었다. 멘토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은퇴’라는 현실로 구겨지지 않는 자신이 당찬 모습으로 반드시 사회에 기여하는 유능한 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은 평범했던 생애과정에서 변화하는 전환 맥락의 역동적인 학습의 전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3모작으로의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

(2) 학습 결과 영향

경험학습 영향은 영성에 귀의, 여가활동 장려하여 재능, 흥미 위주로 개척하기, 활력소 긍정에너지, 수용성, ‘축사’ 등 원고를 타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배운 것을 인용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습득하며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스스로 배운 것을 인용하여 활용, 경험했던 생활이 연결되어 상당한 효과를 얻어요(연구 참여자 A).

살아가는 여유로움, 답답함을 헤쳐나간 즐거움이 있어요(연구 참여자 B).

새로운 배움의 희열을 느껴요(연구 참여자 A).

앞을 이어가는 즐거움이 생겼어요(연구 참여자 D).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평안함 찾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E).

자연스러움과 수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연구 참여자 C).

특별한 관심기울이지 않았으나 현재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듯해요. 자기개발을 통한 자족의 삶, 필요보다는 기능개발, 최고가 되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B).

외소에서 내조로 감사하면서 인간답게 지내고, 변화의 기회로 삼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F).

경험학습의 구체적 비전을 실행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담담하게 현실을 수용하고자 긍정에너지와 삶의 활력소, 배움에 대한 희열, 삶의 즐거움, 삶의 자립심과 새로운 역량을 드러내었다. 심리적으로 혼란스런 인생길에서 자신들이 해결해내지 못했던 아쉬움을 후세들을 위한 꿈과 희망 안내, 멘토 역할로 성공의 길 안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은퇴 전보다 좀 더 풍성한 생활 추구 가능성에 의미를 두며, 학습경험 이후 달라진 점은 은퇴 후 삶을 인생의 주요한 영역임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삶의 관점과 여유로움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3) 은퇴준비 학습의 결과

은퇴준비 학습을 경험한 이후 달라진 점은 은퇴 후의 설계범위가 넓어짐을 보게 되었다. 경험학습에 의한 깨우침, 조심하기, 신중하기, 확실한 삶의 틀이 필요하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영역이 넓어짐,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사람 되기,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통찰하게 되었다.

공직의 꽃이 되는 ‘사무관’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진급할까 하는 열정 때문에 은퇴준비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인생 2모작을 새롭게 경작하게 되는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네요 (연구 참여자

C).

제2의 인생살이에 동기부여가 되어 뿌듯한 시간이었어요(연구 참여자 F).

학습 이후 달라진 이유는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워하다가 실행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정신이 넉넉하게 피어나기도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고자 하였다. 업무전선에서 가족구성원들에게 미진했던 회한을 성찰하고 회복과 성장에 의미를 두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연부역강의 도전정신이라 할 수 있다.

3. 학습전환 의미 찾기

(1) 삶의 전환

연구 참여자들은 소속되어 있던 공직에서 벗어남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담담하게 수용하고 성찰을 위한 마음수양, 이타성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 안정감 있는 믿음생활, 관계 안에서의 신뢰성, 은퇴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벗어나는 당당함과 밝은이미지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담담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나를 발견했어요(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은퇴를 앞두고 차가움, 경직감이 있다고 보는 주변인들의 시선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학습활동 이후 정상적인 일처리를 하면서 친근감, 당당함,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로 연결된 로키산맥을 트래킹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연구 참여자E).

교육현직에 있을 때는 명예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은퇴과정에서는 배우자와의 통합된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는 나 자신을 보았어요. 내가 나를 발견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F).

공직 경험학습에서의 전환된 삶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사회가 함께 공존하기를 희망하는 모습에서 성찰하는 삶의 공직자상에서 통합되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업으로써 갖춰나가던 현실적인 삶에서 배제되는 듯 자아의 갈등을 겪다가 ‘은퇴’ 라는 누구나 겪어나가는 생애사 중 우연적으로 준비된 사건 상황에서 은퇴준비학습에 의한 통합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2) 평생학습 경험

연구 참여자 D는 미진했던 가족관계의 회복과 관계 안에서의 배려심, 가족과 사회에 봉사활동의 의지가 충분하게 솟아나고 있음이 드러났고, 연구 참여자 F도 교직원 재직 시 배우자에게 외조 받아온 것에 대해 감사한 보답을 은퇴 후에는 내조를 좀 더 잘하는 생활로 부부간 행복한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평생 해 오던 일로 사람관계 일을 하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A).

못해 본 여행하기, 봉사활동, 여가활동, 가족의 화목, 가족 생애사 포토에세이 제작 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연구 참여자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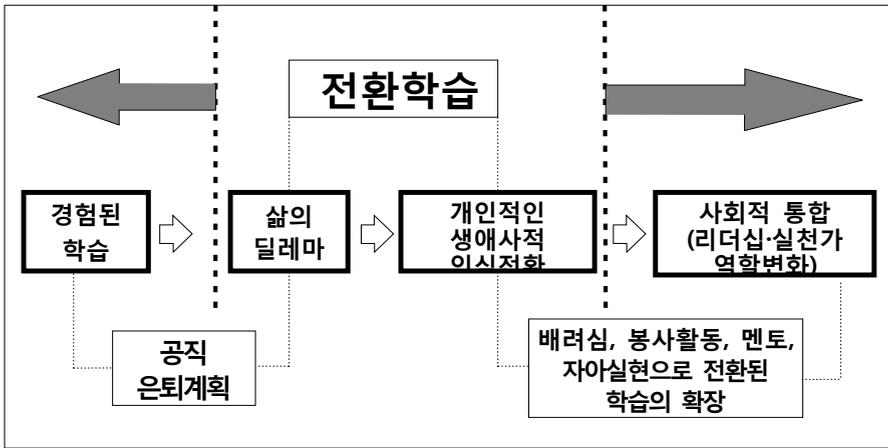
인간다위짐, 아람다위짐, 나를 발견하기를 해 보는 ‘명상’ 이 의미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F).

인간관계 리더십 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되감기’ 하려는 평생학습 경험 후 빛의 사냥꾼과 같은 전환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현실 인식, 정체성을 찾음, 존재감을 느낌, 사회복지로 풍요함 느낌, 실천하고 싶은 의지에 대하여 평생학습경험에 대한 의미를 두었다.

V. 논의 및 결론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8단계 중 성인 중기 단계인 40-65세의 7단계에 해당되는데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과정에서 자아통찰과 새로운 도전정신을 획득하고 심리사회적 7단계인 침체감에 머물지 않고, 멘토역량 등 자아실현하는 열정은 준비된 은퇴과정으로 생성감(generativity)에 이르고 있다. 에릭슨은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 교육하는 생성감(generativity)을 꼽았다(한정란, 2015). 본 연구를 통하여 에릭슨이 제시한 65세 자아통합의 단계보다 앞당겨진 은퇴과정의 60~62세 연령에서 자아정체성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은퇴 과정 안에서의 전이학습의 상황으로 드러난 것은 새로운 발견이다. 특히 사회 복지분야와 평생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의 자기이해와 타인이해의 탐색과정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부부와 가족, 인간관계의 통합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공직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경험된 학습이 은퇴 후 전환되는 과정을 <그림 3>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 공직 은퇴 과정의 전환적 삶의 경험

공직은퇴 베이비부머의 전환적 성장 경험에서 ‘은퇴’라는 생애사건으로 삶의 딜레마를 거치면서 자아실현과 타인 배려, 멘토링 활동, 봉사활동 등 인간관계의 변화와 역할 변화를 감당해내는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감이 드러났다.

한편, 공직은퇴 베이비부머가 전환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사회적 통합은 조선시대 공직자인 다산 정약용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진규동과 강찬석(2019)은 다산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저술했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 다산정신이 주인공정과 위국애민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안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 힘쓰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의

정신은 전환학습 과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도달하는 공직은퇴 베이비부머들의 경험과 유사하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공헌정신이 퇴직 이후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 중 일 경험과 은퇴과정에서 전환된 학습경험으로 인하여 다소 앞당겨진 자아통합된 사회적 자本是 차세대를 위한 멘토역량 가치로 크게 기대된다. 본 연구자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중심으로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하였으나, 대상자의 선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직업군의 은퇴자로 일반화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양한 변인을 매개변수로 한 양적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베이비부머 은퇴시대에 공직 베이비부머의 인적자원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미정. 2016.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대학원 학습참여 경험 의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12(2): 45-68.
- 고미숙, 정희진, 김태형, 장희익, 유경, 남경아. 2016. 『나이 들 수업 : 중년 이후, 존엄한 인생 2막을 위하여』. 서울: 서해문집
- 고미화. 2017.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겸직업무 실천사례경험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재경. 2017. “결정적 생애사를 통한 전환학습 경험 연구: 두 평생교육학 교수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영화. 2000. “퇴직준비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모델의 이론적 토대.” 『Andragogy today』. 3: 17-41.
- 김길수. 2015. “성인학습인의 태권도 수련체험을 통한 홀리스틱 리더십 개발 과정.”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 한정란. 2015. “노년기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노인교육연구』. 1:19-35.
- 김주동. 2012.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 요구분석과 설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이희수. 2009. “간호사들의 무형식학습 양상에 관한 사례연구.” 『직업교육연구』 . 28(3): 181-207.
- 강승원, 최정민, 김미옥. 2013. “중년기 뇌졸중 장애인의 삶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65(1): 33-58.
- 김미용. 2014. “웰다잉교육 참여자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하, 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 31(2): 36-59.
- 김윤권, 오시영. 2013. “적극적인 공무원 퇴직관리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12(1): 219-244.
- 김정규. 2014. “자기 성찰적 글쓰기 방안 모색 연구 : 자기 소개서 쓰기 지도를 중심으로.” 『어문학』 . 125: 49-69.
- 김향식. 2010.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남희, 김옥희. 2016. “퇴직 공직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 『인문사회 21』 . 7(6): 327-344.
- 박민정. 2015.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상에 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 29(4) : 131-156.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한 한국 기업의 정년제도현황과 개선방향」. 서울:한국노동연구원.
- 배문조. 2007.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지』 . 25(1): 145-158.
- 선태무, 최은수. 2012.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평생교육정책 분석과 정책개발 탐색.” 『평생교육 · HRD연구』 . 8(1): 83-105.
- 성영모. 2013. “남편이 은퇴 후 체험한 부부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 60: 169-199.
- 성영모. 2014. “은퇴자 부부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양민. 2010. 『밥, 돈, 자유: 대한민국을 재창조한 베이비붐세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서울: 21세기 북스

이문수. 2019. “Iron Cage와 공직자 윤리: Max Weber의 ‘행동’과 ‘체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53(3): 29-53.

임도빈. 2002. “행정윤리관의 분석틀 모색: 서양철학이론을 중심으로.” 『행정학논총』 . 40(4): 69-95.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 서울: 동녘).

신경림, 양진향, 조명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안동윤. 2006. “기업에서의 무형식학습에 관한 연구: Action Learning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의주, 조은숙, 고은숙, 하정. 2016.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취업진로연구』 . 6(33): 63-89.

이경미. 2011. “인턴십을 통한 대학생의 경력탐색과정과 경력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진, 김남숙, 기영화, 홍성화. 2013. “2013년 12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은퇴 고령자 일경험의 의미: Modified Grounded Theory.” 『직업교육연구』 . 32(6): 133-156.

이희수, 정미영. 2010.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관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 분석.” 『한국교육』 . 37: 121-148.

전찬호, 진성미. 2011. “경력중기 남성사무직 베이비부머의 경력개발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HRD연구(구 인력개발연구)』 . 13(2): 21-43.

정순돌, 박현주, 오은정. 2013.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희망 노후생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 62: 289-316.

정영혜. 2010.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규동, 강찬석. 2019. “평생학습인 다산 정약용의 다산정신에 관한 탐색 : 다산학의 실천적 관점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 22(3): 211-241.

차미란. 2018. “위기지학(爲己之學): 성리학의 인성교육론.” 『도덕교육연

구』. 30(1): 1-23.

채경선, 김만기. 2018. “은퇴를 앞둔 공무원공기업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7(4): 127-151

최무현. 2015. “확장된 퇴직관리 관점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정부학연구』. 21(2): 5-35.

최영희. 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최은영, 최혜경. 2015.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1,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23-57.

최재훈. 2018. “전이학습 관점에서 바라본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앙코르 커리어 활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행정학회 편집부. 2011. “은퇴한 공직자의 리더십 형성 요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1-22.

한선희, 임세영. 2016. “은퇴자의 자원봉사를 통한 전환적 성장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7: 43-69.

황영택. 2018. “호모루덴스 관점에서 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의 회복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225-235.

황윤주. 2015. “중년기 기혼여성 재취업과정에서의 학습경험 유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윤주, 이희수. 2015. “두 50대 여성의 전환적 생애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학습사회』. 11(2): 245-274.

황향희. 2015. “농촌지역 베이비붐세대의 여가라이프스타일과 생성감의 관계.” 『여가학 연구』. 13(1): 105-125.

통계청.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자치부. 2016. 『지방공무원 인사통계발표』.

Billett, S. 2009. “Conceptualizing learning experiences: Contributions and mediations of the social, personal, and brute.” 『Mind, Culture, and Activity』. 16(1): 32-47.

Floyd, F. J., Stephen N. H., Elizabeth R. D., David W., Carolyn L., Tria M. B., Mary W., and Nancy H. 1992. “Assessing retirement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retirement experiences.” 『Psychology and Aging』 . 7(4): 609.

Garrick, J. and Rhodes, C. 1998. “Deconstructive organisational learning: the possibilities for a postmodern epistemology of practice.”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 30(2): 172-183.

Kolb, D. A., Richard E. B., and Charalampos M. 2001.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Previous research and new directions.” 『Perspectives on thinking, learning, and cognitive styles』 . 1(8): 227-247.

Knowles, M. S., HOLTON III, E. F., and Swanson, R. A. 2005. 『The adult learner The adult learner The adult learner』 . San Diego: Elsevier.

McAdams, D. P., and Guo, J. 2015. “Narrating the generative life.” 『Psychological Science』 . 26(4): 475-483.

Merriam, S. B., Caffarella, R. S. and Baumgartner, L. M. 2006.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 John Wiley & Sons.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 San Francisco: Jossey-Bass.

Michelson, E. 1996. “Beyond Galileo’s telescope: situated knowledge and the assessment of experiential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 46(4): 185-196.

Sadler, W. A. 2000. 『The third age: Six principles of personal growth and renewal after 40』 . Da Capo Press.

Stroobants, V., Jans, M., & Wildemeersch, D. 2001. “Making sense of learning for work. Towards a framework of transitional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 20(1-2): 114-126.

Vince, R. 2002. “The impact of emotion on organizational lear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 5(1): 73-85.

Zey, M. G. 1984. 『The mentor connection』 . Irwin Professional Publishing.

[논문접수 2019. 10. 14 ; 심사완료 2019. 11. 18 ; 게재확정 2019. 11. 24]

<Abstract>

Meaning of Transitional Learning according to the Baby Boomer Public Officer Retirees' Life Adjustment

Yang Jung-o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 according to the life adaptation of retired baby boomers in public office.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self-reflection phenomenological method about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ical adaptation process, process and result of learning experience formation during retirement process. Through this process,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nature of phenomena and the specifics of individual subjects experienced in the retirement baby boomer's life adaptation and transfer learning experience were analysed.

Participants in this study have experienced a shift in thought and a shift in meaning through critical reflection as they experience different form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dynamics of human relationships and several programs. Looking at a series of changes in 'meaning scheme' experienced throughout their lives, they learned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through their experience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reby transforming their standards of value from achievement, intellectual pursuit, and work performance to consideration for themselves, while pursuing self-realization and volunteer work. In addition, it is the 'ready-to-be-retired process' that aims to live a happy and integrated life with family members and others, mentoring activities, and sharing life.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work experience of the retired official are

* ph.D. Candidate of Sungsil University, Director of Namyangju Family Counseling Center, Director of Chan-sam Life-long Education Center

being converted to expectations of the bridge's role in the community connecting past, present and future life after retirement and recognition as a new opportunity in the demographic transition era. Therefore, it is worth re-producing the human resources of those who leave office in society as self-integration of old age is easy for those who retire from public office.

Key Words: Boomers, Transitional Learning, Transitional Growth Experience, Retiree from Public.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PAI 반응

*

**

【목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자살관념척도, 자살잠재성과 만성적 자살위험지표를 통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AI 표준화 과정에서 수집한 일반성인 401명, 임상장면의 정신질환자 761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3가지 지표의 내적 일관성, 상관 및 정신질환 유형 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질환집단이 일반성인 집단보다 자살 위험성이 더 높고, 우울집단 또한 일반성인 집단보다 더 높은 자살 위험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신저자 :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eyp0202@cu.ac.kr

*** 서울삼성병원 교수

****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성인 집단보다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집단의 자살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 해주며, 이러한 지표의 유용성을 지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조현병,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성격장애 등에서 나타나는 자살 고위험군의 임상적 특징을 알아본 결과, 망상, 우울, 경계선적 특징의 척도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안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살 고위험군, PAI, 정신질환, 자살관념,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위험

I. 서론

정신질환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들로 발생된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개인은 사회와 가정 등에서 소외되기가 쉽다.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책이 있음에도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자살이란 자살 행위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WHO, 2018). 2018년 OECD가 발표한 자살 통계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6명으로 36개국 중 1위로 심각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다룬 자살의 동기에 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자살의 동기는 경제생활문제, 육체질병문제, 정신과적 문제 등 여러 동기 중 정신과적 문제가 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기(19세~34세)의 자살 위험 요인은 정신건강문제, 학업 문제 순이었고, 중년기(35세~49세)에서는 업무부담, 자살시도, 우울장애 순이었다. 장년기(50세~64세)는 우울장애, 가족 관계 순으로 나타났고 노년기(65세 이상)는 자살시도, 신체적 부상 순이었다(중앙심리부검센터, 2018). 이를 요약하자면 자살에는 다양한 동기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우울과 여러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과적 문제가 지니는 영향력을 간과하기에 높은 수준이었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실제 정신질환자의 자살위험은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3~12배가

높으며, 전체 정신질환자의 약 25~5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고 밝혀져 왔다(Sadock and Sadock, 2003; Jung, 2011).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25.45%(보건복지부, 2018)인 점과 앞선 결과들을 함께 예측해본다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 중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김수진, 이주영, 2018), 대학생(김광진, 정남운, 2019) 등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위험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신질환자들의 자살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서성이, 김희숙, 김양태, 2013; 이미영, 김영선, 2014). 반면, 외국에서는 이미 정동 장애뿐만 아니라 약물 남용이나 섭식 장애도 자살 위험성과 관련이 높고, 조현병,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신질환의 자살 위험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문경주, 이주영, 허자영, 2015; Anderson, Howard, Walker and Suchinsky, 1995; Bongar, 2002; Henriksson 외, 1993; Paris and Zweig-Frank, 2001; Tanney, 1992).

현재 국내에서는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와 같이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검사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울과 자살사고만으로는 자살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Morey(1991)가 개발한 성격평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의 치료고려 척도에 속하는 자살 관념척도(Suicide Ideation, SUI)와 그에 따른 자살잠재성지표(Suicide Potential Index, SPI; Morey, 1996),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Chronic Suicide Risk, S_Chron; Sinclair 외, 2016)를 사용하여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PAI의 자살잠재성지표와 만성적 자살위험지표는 자살에 영향을 주는 20가지 위험요인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자살 위험성을 다각적으로 높게 변별, 평가할 수 있다. 즉, 자살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치료적 고려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또한, PAI는 임상적 구성개념이나 임상집단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임상집단의 변별에 유리한 장점을 보인다(Morey, 1991; 홍상황, 김영환, 2002; 오상우, 오윤미, 2003).

II. 선행연구

자살은 단순히 자살 생각 이후 바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살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자살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사망 등 일련의 단계가 존재한다(Jeon 외, 2010). 국내의 자살 시도 유병률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들의 자살관념, 계획 및 시도의 평생 유병률은 각각 15.2%, 3.3%, 3.2%이었고 1회 자살 시도의 평생 유병률은 2.1%이며 그 이상 자살 시도의 평생 유병률은 1.1 %이었다(Jeon 외, 2010). 이러한 자살의 단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19~65세를 대상으로, 자살생각자와 자살시도자를 구분하는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선천적 특성 등의 기질 변인은 자살 시도를 예측하지 못하였다(류성은, 유성은, 2017). 그러나, 자살을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시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망감, 대인관계 문제, 알코올 남용 등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김정진, 2009). 또한, 자살 행동에는 자살, 죽음과 관련된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문경주, 이주영, 허자영, 2015), 이를 통해 자살관념을 다루는 것이 자살위험의 일차적인 예방에 유용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이주영, 2016).

자살관념 이후 자살 시도가 나타나는데, 자살 시도란 사망에 이르기 바로 직전의 가장 위급한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자살 시도 또는 자해 경험이 자살 위험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통계자료에서도 이 점을 뒷받침하는데, 2017년 국내 정신건강센터에서 조사한 정신건강센터 회원 중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자살 시도력이 있는 사람이 78%로 나타나 자살사망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위험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나기희, 최승기, 김하늬, 이주연, 김재민, 신일선, 김성완, 2017). 고의적 자해(deliberate self-harm)로 내원한 11,5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년 종단연구를 한 결과, 300명(2.6%)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이러한 고의적 자해 후 1년 내 자살 위험성은 자해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66배나 높았다(차아름, 이수정, 2016; Hawton, Zahl and Weatherall, 2003). 과거 자살 시도력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

적으로 자살 시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한 경향, 충동적, 편집적 등의 심리적 특성을 유의하게 나타냈다(최재화 등, 2017).

정신질환은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서로 다른 정신질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도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우울장애를 살펴보면(나기희 등, 2017) 자살시도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3분의 2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Langlois and Morrison, 2007)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행동 모두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Goldney, Dal Grande, Fisher and Wilson, 2003).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장애의 진행 단계에 따라 자살 위험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 노인성치매 연구센터(Clinical Research Center for Dementia of Kore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도 인지장애의 초기 단계에서 자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Lee, Yang and Jun, 2008). 이는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자각하는 병식이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요약,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자살 위험군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선행연구와 통계적 조사들에서 개인의 정신질환과 그에 따른 임상적 특성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즉, 자살 위험군들의 임상적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BDI, SSI와 같은 유용한 검사 도구도 존재하지만, 자살 위험성과 임상적 특성을 함께 다루기 위해서는 PAI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AI를 통해 자살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집단과 일반 성인집단의 자살 위험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우울이 자살 위험성과 가장 관련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일반 성인집단과 우울집단 간의 자살 위험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 고위험군 중 우울장애 이외의 다른 정신질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양상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PAI 표준화(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임지영, 황순택, 2011) 과정에서 수집한 일반성인과 정신질환자의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성인은 대학생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DSM-IV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비밀보장, 연구 참여 중 철회 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PAI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심의면제 승인번호: CUIRB-2019-E008). 총 1,700명의 자료 중에서 타당성이 낮은 자료를 배제하기 위해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2001)의 연구에서 제안한 무선반응과 인상관리의 탐지 기준에 해당하는 비일관성(inconsistency; ICN) 73T 이상, 저빈도(infrequency; INF) 67T 이상, 부정적 인상(negative impression; NIM) 74T 이상, 긍정적 인상(positive impression; PIM) 68T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료 538명을 제외한 1,16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명은 진단 당시 DSM-IV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담당 주치의가 1차 진단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2차로 다시 선별하고 이 연구를 위해 DSM-5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에 한해 진단명을 부여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잠재성(SPI), 만성적 자살위험척도(S_Chron)를 사용하여 상정하였다. 자살관념척도 점수는 개인이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 자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김영환 등, 2019).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들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1) 자살잠재성 척도의 원점수가 8점 이상인 경우 자살위험을 의심해야 하고, 원점수가 11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즉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Morey(199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점수 8점에 해당하는 53T 이상인 경우. (2) 만성적 자살위험

지표의 원점수가 12점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자살시도를 한 적 있거나 만성적 자살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Sinclair(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적 자살위험 지표가 51T 이상인 경우로 자살 고위험군을 상정하였다. 자살 저위험군은 이 연구에서 자살 고위험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상정하였다.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 연구의 전체 대상은 총 1,162명이었다. 전체 대상 중 일반성인 집단은 총 401명으로 평균 연령은 38.1세(SD=13.73)이었다. 자살 저위험군은 총 360명으로 평균 연령은 36.61세(SD=13.61)이었다. 자살 위험군은 총 401명이었다. 자살 위험군의 평균 연령은 35.32세(SD=12.82)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 기술통계

자살 저위험군 중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는 122명(33.1%)이었고, 평균 연령은 33.7세(SD=10.84)이었다. 신경인지장애는 62명(15%)이었고, 평균 연령은 43.17세(SD=16.54)이었다. 성격장애는 57명(6.8%)이었고 평균 연령은 29.09세(SD=11.01)이었다.

자살 위험군 중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는 122명(30.4%)이었고 평균 연령은 32.03세이었다. 우울장애는 69명(17.2%)이었고 평균 연령은 39.28세(SD=14.95)이었다. 신경인지장애는 52명(13%)이었고 평균 연령은 42.79세(SD=14)이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41명(10.2%)이었고 평균 연령은 31.29세(SD=12.55)이었다.

2. 측정 도구

(1) 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Morey(1991)가 개발하고 김영환 등(2001)이 표준화한 PAI를 사용하였다.

PAI는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중간이다”(2), “매우 그렇다”(3)의 4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 척도, 5개의 치료 척도, 2개의 대인관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척도인 비일관성(ICN), 저빈도(INF), 부정적 인상(NIM), 긍정적 인상(PIM)과 임상 척도인 신체적 호소(somatic complaints; SOM), 불안(anxiety; ANX), 불안관련 장애(anxiety-related disorders; ARD), 우울(depression; DEP), 조증(mania; MAN), 망상(paranoia; PAR), 조현병(schizophrenia; SCZ), 경계선적 특징(borderline features; BOR), 반사회적 특징(antisocial features; ANT), 알코올문제(alcohol problems; ALC), 약물문제(drug problems; DRG)와 치료고려 척도인 공격성(aggression; AGG), 자살관념(suicidal ideation; SUI), 스트레스(stress; STR), 비지지(nonsupport; NON), 치료거부(treatment rejection; RXR)와 대인관계 척도인 지배성(dominance; DOM), 온정성(warmth; WRM)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10개 척도는 임상적 해석과 진단의 구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3~4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비일관성, 저빈도, 약물문제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α)는 .60~.88의 범위이었다. PAI는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MMPI-2와는 달리 각 척도와 하위 척도 간 문항 중복이 없을 뿐 아니라 각 척도를 구성할 때 Loevinger(1957)와 Jackson(1970)이 기술한 순차적 구성타당화에 근거하여 개발해 특히 진단 집단 간 변별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Slavin-Mulford, Sinclair, Stein, Malone, Bello, and Blais, 2012).

자살관념척도(SUI)는 무력감과 자살에 대한 일반적으로 모호한 생각과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하기 이전에 자살하려는 의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척도이다(Morey, 2001, 2014). 자살관념 점수가 상승하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실제로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은 의미는 아니다. 이 척도의 자살 위험군과 일반성인 집단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6, .70이었다.¹⁾

1) 자살관념척도는 12개 문항이지만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는 자살관념 척도의 하위척도 점수의 형태와 상승 정도를 가지고 도출하는 점수라 내적 합

자살잠재성지표(SPI)는 자살 위험 요인을 다룬 연구들에서 지적된 20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PAI 프로파일의 형태적 특징, 예컨대, 과도한 음주(ALC>60T), 약물남용(DRG>60T),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STR>65T),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분리(NON>60T) 등을 점수화한 것이다(Morey, 1996; Sinclair 외, 2016). 자살잠재성지표의 원점수가 13점일 경우, PAI 임상 표준화표본의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상승한 점수이고, 일반성인 기준 평균보다 3 표준편차 상승한 값이다. 이 척도는 자살위험의 상태와 자살 관념에 대한 자기보고 척도를 포함하여 다른 자살관념척도와 상관성이 높다(Morey, 1996).

만성적 자살위험 지표는 만성적 자살위험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병리 수준이 심각하고 자살 시도를 할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에서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환자와 자살 시도를 한번 하거나 하지 않은 환자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보충 지표이다.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환자들은 부정적 인상, 스트레스, 자존감(mania grandiosity; MAN-G), 부정적 관계(borderline negative relationship; BOR-N), 충동성(borderline self-harm),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s; ANT-A) 등의 6개의 하위척도가 유의하게 상승한다. 이러한 척도의 상승 정도에 점수를 부가하여 만성적 자살위험지표 점수를 산출하고, 이 지표의 점수가 12점 이상이면 1회 이상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거나 만성적 자살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영환 등 2019; Sinclair 외, 2016). 그리고 자살위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경우 3가지 척도(지표) 점수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오상우, 홍상환, 박은영, 2014). 이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전체와 일반성인, 자살 고위험군, 저위험군 내 세 지표 간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자살관념,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위험 지표의 상관

집단구분	척도	SUI	SPI	S_Chron
연구대상 전체 (N=1,162)	SUI	-		
	SPI	.653**	-	
	S_Chron	.547**	.741**	-
일반성인 (n=401)	SUI	-		
	SPI	.533**	-	
	S_Chron	.478**	.624**	-
자살 고위험군 (n=401)	SUI	-		
	SPI	.485**	-	
	S_Chron	.354**	.550**	-
자살 저위험군 (n=360)	SUI	-		
	SPI	.349**	-	
	S_Chron	.064	.205*	-

*** $p < .001$, ** $p < .01$, * $p < .05$

3. 자료의 처리와 분석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둘째, 정신질환과 일반성인 집단, 우울집단과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관념,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위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차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자살관념척도,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위험지표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Scheffé)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정신질환 집단과 일반성인 집단의 차이

정신질환 집단과 일반성인 집단의 3가지 자살위험 척도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성인 집단보다 정신

질환 집단의 자살잠재성지표($t=28.92, p<.001, Cohen's d=2.89$), 자살관념척도($t=16.40, p<.001, Cohen's d=.78$), 만성적 자살위험지표($t=22.94, p<.001, Cohen's d=.72$)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신질환 집단과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위험성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정신질환 집단 (n=761)	일반성인 집단 (n=401)	t	Cohen's d
SUI	55.71(16.13)	46.02(6.68)	16.40***	.78
SPI	68.14(10.22)	44.48(5.46)	28.92***	2.89
S_Chron	65.76(9.03)	58.30(11.61)	22.94***	.72

*** $p<.001$, ** $p<.01$

2. 우울증 환자와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위험성 척도의 차이

이 연구에서의 정신질환자 집단 중 우울증 환자와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위험성 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살잠재성지표($t=15.63, p<.001, Cohen's d = 2.66$),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t=14.83, p<.001, Cohen's d = 2.52$), 자살관념척도($t=9.33, p<.001, Cohen's d = 1.59$)에서 모두 일반성인 집단보다 우울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우울증 환자와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위험성 척도의 차이

	우울증 환자 (n=69)	일반성인 집단 (n=401)	t	Cohen's d
SUI	66.73 (18.21)	44.84 (7.01)	9.33***	1.59
SPI	69 (11.31)	44.86 (6.1)	15.63***	2.66
S_Chron	65.37 (9.17)	45.58 (6.26)	14.83***	2.52

*** $p<.001$, ** $p<.01$

3.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유형별 자살위험성 척도의 차이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유형별 자살관념척도,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의 F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자살관념척도에서 정신질환 유형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7, 393) = 3.66, p < .01$). 자살잠재성지표에서는 정신질환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7, 393) = 1.4, ns$).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에서는 정신질환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7, 393) = 1.79, ns$).

표 4.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유형별 자살위험성 척도의 차이 (n=401)

척도	a	b	c	d	e	f	g	h	F	η^2	Scheffé
SUI	59.03 (14.97)	66.73 (18.21)	59.77 (14.07)	67.73 (19.91)	58.09 (14.31)	64.73 (17.15)	54.75 (9.7)	58.24 (12.33)	3.66**	.061	-
SPI	67.11 (9.60)	69 (11.31)	66.81 (9.2)	70.17 (10.32)	67.80 (10.56)	70.58 (10.57)	71.19 (10.03)	65.55 (10.44)	1.4	.024	-
S_Chron	65.52 (8.43)	65.37 (9.18)	64.13 (6.77)	65.26 (9.23)	66.74 (8.11)	70.59 (13.41)	66.37 (9.75)	64.43 (8.17)	1.79	.031	-

a=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b=우울장애, c=신경인지장애, d=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e=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f=성격장애, g=불안장애, h=양극성 및 관련 장애

4.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유형 간 임상적 특성의 차이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유형 간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증(Scheffé)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는 우울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보다 망상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F(7, 393) = 4.75, p < .001$), 조현병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7, 393) = 3.63, p < .001$). 양극성 및 관련 장애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보다 불안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F(7, 393) = 8.024, p < .001$). 우울장애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보다 우울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F(7, 393) = 11.99, p < .001$). 불안장애는 다른 장애들보다 불안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F(7, 393) = 8.024, p < .001$).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다른 장애들보다 우울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F(7, 393) = 11.99, p < .001$).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다른 장애들보다 알코올 문제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F(7, 393) = 14.23, p < .001$).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보다 약물문제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7, 393) = 3.23, p < .01$). 신경인지장애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보다 우울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7, 393) = 11.99, p < .001$). 성격장애는 신경인지장애보다 경계선적 특징 척도에서 신경인지장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7, 393) = 2.34, p < .001$).

각각의 정신질환 유형에서 상승하는 임상 척도들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에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표 6>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유형 간 임상적 특성의 차이 (n=401)

척도	a	b	c	d	e	f	g	h	F	η^2	Scheffe
SOM	60.38 (11.97)	57.17 (12.07)	62.65 (13.5)	67.78 (17.68)	63.35 (16.8)	60.57 (16.38)	64.45 (15.74)	66.14 (16.94)	1.45	-	-
ANX	61.95 (10.32)	58.77 (11.74)	64.28 (12.14)	73.96 (8.06)	69.14 (9.83)	55.74 (9.5)	61.37 (11.57)	67.35 (11.55)	8.02***	.133	g > b=d=f > a=c > h > e
ARD	61.80 (11.11)	59.05 (11.49)	60.94 (13.57)	67.28 (7.88)	66.65 (11.42)	59.05 (8.76)	60.93 (12.37)	62.01 (12.2)	2.61**	.047	-
DEP	63.43 (9.42)	62.01 (12.08)	72.79 (10.94)	66.59 (8.76)	74.61 (10.89)	61.82 (9.37)	71.16 (9.7)	69.21 (10.81)	11.99***	.186	d > b=g=c=f > a > h=e
MAN	54.44 (12.43)	56.37 (12.89)	48.61 (1.14)	49.57 (13.27)	53.66 (10.01)	55.23 (9.7)	51.85 (11.31)	54.31 (9.79)	2.78**	.047	-
PAR	63.6 (12.5)	58.63 (12.31)	55.57 (11.74)	56.64 (11.5)	62.12 (13.87)	53.26 (8.74)	57.24 (11.80)	57.49 (11.87)	4.75***	.083	a > b=e
SCZ	63.91 (12.89)	57.65 (11.07)	56.87 (11.27)	60.59 (9.95)	61.84 (11.35)	55.98 (7.72)	58.53 (9.77)	57.2 (11.96)	3.63***	.065	a > b
BOR	60.93 (9.85)	61.30 (10.61)	60.21 (12.05)	63.54 (11.39)	62.59 (9.66)	60.5 (7.03)	58.16 (9.4)	67.38 (11.68)	2.34*	.043	f > c
ANT	58.35 (10.24)	57.79 (8.34)	52.13 (8.48)	52.8 (13.15)	53.15 (10.04)	59.65 (9.72)	54.65 (11.21)	60.14 (14.1)	4.62***	.081	-
ALC	53.52 (12.53)	51.73 (11.21)	55.13 (14.12)	52.88 (15.76)	47.54 (10.17)	75.78 (13.17)	53.66 (12.19)	54.15 (14.37)	14.23***	.213	e > a=b=c=d=f=h
DRG	61.82 (13.07)	56.69 (14.11)	58.15 (11.28)	56.12 (12.73)	53.93 (12.23)	65.52 (13.73)	57.98 (11.24)	57.26 (15.49)	3.23**	.058	e > d

a=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b=우울장애, c=신경인지장애, d=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e=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f=성격장애, g=불안장애, h=양극성 및 관련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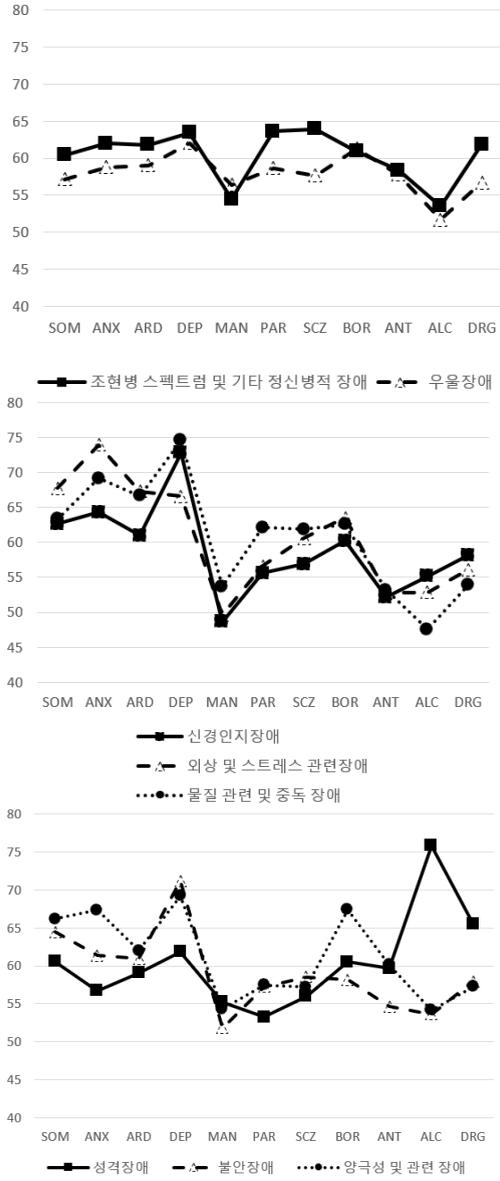


그림 1. 정신질환 유형별 임상 척도 프로파일

V. 논의

이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일반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성의 특성을 PAI 척도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총 1,16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PAI의 자살관념척도, 자살잠재성지표,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를 통해 자살위험군을 상징하고, PAI의 임상 척도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우울장애와 일반성인 집단을 비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정신질환에서의 자살 위험성의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 집단과 일반성인 집단 간 자살관념척도, 자살잠재성지표,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이 세 지표 모두에서 정신질환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자·타해위험행동의 가능성이 있어 입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서진환, 전미자, 2018). 특히 세 지표 중 만성적 자살위험 지표에서 정신질환 집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자살위험이 일반성인 집단보다 더 높고 절반가량이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중 자살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우울집단과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 위험성 차이를 알아보았다. 우울집단의 자살관련 척도의 점수가 일반성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통계학적 자료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이 자살 위험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일반성인 집단보다 우울집단의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는 자살자의 60~70%가 주요 우울장애였다는 보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서성이, 김희숙, 김양태, 2013; 이미영, 김영선, 2014).

셋째,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유형 간 자살위험 척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자살관념척도에서 정신질환의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사후분석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지적되기에는 미비했다. 자살관념척도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기적으로 자해에 대해 생각하고 순간적인 자해경험이 있을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자살관념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불행하게 생각할 수 있고, 반복적인 자살관념 또한 보일 수 있어 자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생각

해야 한다(김찬미, 최종옥, 2018). 자살관념척도가 분명한 자살관념의 심각성을 제공해주지만, 이 척도에는 알코올 남용 등 자살과 관련 있는 다른 위험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비지지 척도와 같은 환경적 영향 특성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자살 고위험군이 가지는 정신질환에 따라 어떠한 임상적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는 망상 척도와 조현병 척도에서 다른 정신질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심리 부검 결과를 살펴보면, 조현병 환자에서는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특징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나기회 등, 2017). 특히,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임상 척도 대부분은 55T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망상과 환각 이외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불안정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이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신경인지장애는 우울 척도에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뒤이어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척도를 보였다. 이는 신경인지장애가 대부분 불안, 우울, 무감동 등의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김종필, 현미열, 2013; Lee, Lee, Yang and Jun, 2008)를 지지한다. 즉, 신경인지장애의 증상 중 우울감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경험될 수 있으므로 우울의 하위척도인 인지적 우울의 상승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 장애의 자살 위험성 개입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우울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우울 척도에서 우울장애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인데, 이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 흔히 겪는 정신질환이 우울장애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한보람, 김정규, 2014; Hinton, Tiet, Tran and Chesney, 1997). 그림 1을 살펴보면, 불안 척도가 함께 상승하였다. Horowitz 등(1980)이 외상피해자들이 긴장감, 공포감, 갑작스러운 두려움 등의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김민정, 김수현, 김교현, 2015).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는 알코올 문제 척도에서 다른 장애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중 알코올 장애가 기분장애와 더불어 자살 및 자살 행동과 가장 관련이 높은 정신과적 장애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편용기, 유성은, 이승복, 2016).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울 척도가 동반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특히 알코올중독자에서 우울할수록, 자살시도경험이 있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윤명숙, 2011). 이들의 자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 중독을 완화시키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 및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적대적 정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편용기, 2016).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가정애, 가정애 알코올 중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동의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 치료와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특성을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성격장애는 경계선적 특징 척도에서 가장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경계선적 특징 척도는 정서적 불안정, 정체성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손상과 같은 네 가지 하위척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격장애의 유형과 경계선적 특징 척도의 하위척도를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그 중 자기손상의 척도가 충동적 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자살관념척도와 자기손상의 척도가 동시 상승할 경우 충동적인 자살 시도의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수의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자살관련문제를 보이는 선행연구(여환홍, 백용매,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알코올 문제 척도도 함께 상승하였다.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중 알코올 남용 등이 포함되는 점을 미뤄봤을 때 성격장애의 자살위험성은 알코올 문제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에 따라 서로 다른 임상적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추상적인 자살 위험성의 연구를 보충해주는 결과로써 향후 정신질환자들의 자살 위험성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타당하고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정신질환자들과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 위험성의 차이에서 자살관념척도,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 위험지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반성인 집단보다 자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성인 집단에 비해 높은 자살

위험성을 보였고, 개개인의 정신질환에 따라 서로 다른 임상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추상적인 자살 위험성의 연구를 보충해주는 결과로 향후 정신질환자들의 자살 위험성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대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PAI의 자살관념척도,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위험지표를 임상 장면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살관념척도는 자살의 단계 중 가장 초기인 자살관념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자살 행동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PAI-A(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Adolescent)의 자살관념, 자살잠재성, 만성적 자살위험 척도를 학교 장면에서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와 일반 자해 행동을 구분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PAI-PS(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rison Settings, 이수정 외, 인쇄 중)를 교정장면에서 쓴다면, 자살 고위험군의 수형자들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질환 유형의 표본 수가 달랐고 다른 정신질환들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대상자들을 더욱 많이 수집하여 통계적 결과를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최근 정신질환이 생물학적, 유전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임상자료와 일반성인 집단의 자살 고위험군 자료를 더 축적하여 연구의 일반성을 높여 이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광진, 정남운. 2019.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249-271.
- 김민정, 김수현, 김교현. 2015.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경험과 자살사고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249-270.

김수진, 이주영. 2018.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걱정과 파국화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7(1), 54-65.

김영환, 권해수, 김지혜, 박은영, 박중규, 오상우, 이수정, 이은호, 조은경, 황순택, 홍상황. 2019. “PAI 증보판.” 『인싸이트』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PAI 표준화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20(2): 311-329.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32(1), 413-436.

김찬미, 최종욱. 2018. “임상군의 MMPI-2, PAI 반응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4(1): 143-155.

나기희, 최승기, 김하늬, 이주연, 김재민, 신일선, 김성완. 2017. “정신건강센터 등록 회원 자살사망자 특성.” 『대한조현병학회지』 . 20(2), 55-60.

류성은, 유성은. 2017. “자살생각자와 자살시도자를 구분해주는 심리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6(4): 589-603.

문경주, 이주영, 허자영. 2015. “MMPI-2-RF 척도로 본 대학생 자살 위험군의 심리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4(3): 809-827.

서진환, 전미자. 2018. “정신병동 이용자의 물리적 공간 환경 경험과 인식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스티그마가 투영된 공간.”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1(1): 1-25.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29(4): 1047-1066.

윤명숙. 2011.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음주의 조절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 38(), 113-140.

오상우, 오윤미. (2003). “PAI 타당성 척도의 진단적 기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03(1), 147-148.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14. 『PAI 평가의 핵심』 . 서울: 학지사

이미영, 김영선. 2014.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8(2), 209-220.
- 임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0(1), 71-92.
- 서성이, 김희숙, 김양태. 2013. “정신장애인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24(2), 245-254.
- 중앙심리부검센터.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 차아름, 이수정. 2016. “인지신경심리학적 도구를 통한 암묵적 자살위험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30(1): 93-113.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23(3), 693-716.
- 최재화, 김혜금, 천은진, 이영지, 박희정, 김지연, 구분훈. 2017.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방어기제와 심리적 특성의 차이.” 『Psychoanalysis』 . 1226-7503, 28(4).
- 편용기, 유성은, 이승복. 2016. “알코올 장애군의 자의식적 부정정서와 자살 행동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5(1): 299-307.
- 한보람, 김정규. 2014.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3(3): 531-550.
- 홍상황, 김영환. 2002. “PAI 임상척도의 진단변별기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21(3), 609-630.
- 홍상황, 박은영. 2012. “성격평가질문지(PAI) 반응왜곡지표의 효율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1(4): 1023-1039.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2001. “PAI 무선반응과 인상관리의 탐지.”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20(1): 165-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 (DSM-5).” Washington, DC: Author.
- Anderson, B. A., Walker, R. D., Howard, M. O., & Suchinsky, R. T. 1995. “Characteristics of substance-abusing veterans attempting suicide: a national study.” Psychological reports. 77(3): 1231-1242.

Bongar, B. 2002. *The suicidal patient: Clinical and legal standards of care*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oldney, R. D., Dal Grande, E., Fisher, L. J., & Wilson, D. 2003.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of major depression for suicidal ideation in a random and representative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3), 267-272.

Hawton, K., Zahl, D., & Weatherall, R. 2003. "Suicide following deliberate self-harm: long-term follow-up of patients who presented to a general hospit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2(6): 537-542.

Henriksson, M. M., Aro, H. M., Marttunen, M. J., Heikkinen, M. E., Isometsa, E. T., Kuoppasalmi, K. I., & Lonnqvist, J. K. 1993. "Mental disorders and comorbidity in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935-935.

Hinton, W. L., Tiet, Q., Tran, C. G., & Chesney, M. 1997.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efugees from Vietnam: A longitudinal study of new arrival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 39-45.

Horowitz, M. J., Wilner, N., Kaltreider, N., & Alvarez, W. 1980. "Sign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1), 85-92.

Jeon, H. J., Lee, J. Y., Lee, Y. M., Hong, J. P., Won, S. H., Cho, S. J., & Cho, M. J. 2010. "Lifetim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plan, and single and multiple attempts in a Korean nationwide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9): 643-646.

Lee, G. J., Lee, K. L., Yang, S., & Jun, W. H. 2008. "Quality of life and the associated factors in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3): 273-280.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Morey, L. C. 1996. "An interpretive guide to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Paris, J., & Zweig-Frank, H. 2001. "The 27-year follow-up of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Sadock, B. J., Sadock, V. A., & Ruiz, P. 2003.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 *Clinical psychiatry*. 9, 632.

Sinclair, S. J., Roche, M. J., Temes, C., Massey, C., Chung, W. J., Stein, M., & Blais, M. 2016. "Evaluating chronic suicide risk with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hronic Suicide Risk Index (S_Chron)." *Psychiatry research*. 245: 443-450.

Sinclair, S. J., Slavin-Mulford, J., Antonius, D., Stein, M. B., Siefert, C. J., Haggerty, G., & Blais, M. A. 2013.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Level of Care Index (LOCI) from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in a psychiatric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25(2): 606.

Slavin-Mulford, J., Sinclair, S. J., Stein, M., Malone, J., Bello, I., & Blais, M. A. 2012. "External validity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6), 593-600.

Tanney, B. L. 1992. "Mental disorders, psychiatric patients, and suicide."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uicide*. 277-320.

[논문접수 2019. 10. 15 ; 심사완료 2019. 11. 25 ; 게재확정 2019. 11. 30]

<Abstract>

PAI Response of High-risk Suicide Mental Disease

Park, Kyung Seo*

Park, Eun Young**

Kim, Ji Hye***

Hong, Sang Hw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igh-risk suicide mental illness patients through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suicidal ideation scale, suicidal potential and chronic suicidal risk index.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401 general adults and 761 mental patients in clinical scene were used to compare the internal consistency, correlation and mental disease types of the three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ntal illness group showed higher risk of suicide than the general adult group, and the depression group showed higher risk of suicide than the general adult group.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suicidal risk of the mentally ill, especially the depressed group, i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adult group, and it is thought that this indicator is useful. In additio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high-risk suicide groups such as schizophrenia, trauma and stress-related disorders, and personality disorder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 scales of delusion, depression, and borderline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high.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Suicidal risk group, Mental illness, PAI, Suicide ideation,
Suicide Potential, Chronic suicide risk

*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Professor,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Professor, Samsung Medical Center

****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부록

부록 1. 정신질환 유형 별 자살 지표 간의 상관관계

질환 유형	척도	SUI	SPI	S_Chron
a	SUI	-		
	SPI	.430**	-	
	S_Chron	.410**	.549**	-
b	SUI	-		
	SPI	.640**	-	
	S_Chron	.421**	.625**	-
c	SUI	-		
	SPI	.339*	-	
	S_Chron	.074	.380**	-
d	SUI	-		
	SPI	.703**	-	
	S_Chron	.484**	.604**	-
e	SUI	-		
	SPI	.512**	-	
	S_Chron	.413*	.534**	-
f	SUI	-		
	SPI	.247	-	
	S_Chron	.323	.622**	-
g	SUI	-		
	SPI	.460*	-	
	S_Chron	.351	.335	-
h	SUI	-		
	SPI	.338	-	
	S_Chron	.261	.620	-

a=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b=우울장애, c=신경인지장애,

d=위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e=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f=성격장애,

g=불안장애, h=양극성 및 관련 장애

*** $p < .001$, ** $p < .01$, * $p < .05$,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제설정효과 분석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복지제도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국민복지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정 발언은 정부의 국민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여론의 형성을 시작으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제도와 비슷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여론 분석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언론사 2곳을 선정하여 각 언론사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읽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 보았다.

*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e-mail: wkpark69@gmail.com

연구결과 매체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어느 정도 공공의제 형성에 기여한다는 초기 의제설정 이론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국민연금, 의제설정, 대통령, 문재인

I. 서론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기존의 의결권 행사에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 갈등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소위 땅콩운항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대한항공이나 또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에 국민연금이 적지 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의 재벌개혁 정책과 한국 기업의 미래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새로운 정책 방향은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정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한다고 나타나고 있다(주수정 외, 2017).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여론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 이슈가 공중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이며 또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제설정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의제설정 이론은 여론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한 이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제설정 이론은 매스미디어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주요 도구로서 여론 설정 및 변화를 주요 이론 중의 하나이다.

특히 여론의 설정 및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스미디어 중 언론의 역할을 중요시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언론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갈등적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 및 전망 등을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들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여론 설정이나 형성을 더욱 강화하거나 또한 특정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불균형과 효과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의제설정 이론은 196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캠페인의 의제설정 과정 연구(McCombs & Shaw, 1972)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 주요 언론보도에서 강조한 이슈와 이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권자 독자층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바탕으로 의제설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펑크하우저(Funkhouser, 1972)의 미디어 보도와 여론 사이의 관계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보도한 이슈와 수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쇼와 맥컴스(Shaw & McCombs, 1977)의 후속 연구에서는 언론이 공중의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 외 기타 관련 여러 연구에서는 의제설정의 인과관계(Iyengar & Kinder, 1987), 특정 후보에 대한 평가기준(Iyengar, Peters & Kinder, 1982), 이슈의 두드러짐(Zucker, 1978)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의제설정은 단순히 언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의제설정을 먼저 설정해 주는 특정 인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특정 인물은 한 나라의 지도자나 리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흥미로운 몇 개의 연구결과가 있다. 맥컴스, 길버트, 그리고 얼(McCombs, Gilbert & Eyal, 1982)은 실제로 대통령이 미디어 의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미국 국회에서의 대통령 의회 연설이후 신문과 방송에서 어떤 의제들이 도출되었는지를 국회연설전과 연설후를 비교해 본 결과 대통령이 미디어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언론 매체 별 의제설정과 관련한 연구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신문은 경제와 정치적 이념에서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며,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진보적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희·노기영, 2011).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

통령의 의제가 언론의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조국 서울대교수의 법무부 장관 기용과정에서 터져 나온 대입관련 수정 또는 개편에 관한 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의제설정이 되고 있다.

의제설정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디어는 미디어의 특성상 반복되고 안정된 보도를 통해 수용자에게 어떤 이슈의 중요도를 높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특히 이러한 능력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 지를 결정하여 미디어, 정부, 그리고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이슈는 부각시키고 다른 이슈는 줄이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여론 설정이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특성상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 중에 한 부분인 ‘국민연금에 대한 의제설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두 언론사의 의제 설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언론분야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보수와 진보 진영 신문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진숙, 2001; 성동규, 2009). 따라서 이들 신문사들을 선택하고 각 사의 국민연금관련 보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서의 국민연금 의제설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독자들은 국민연금 의제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의제설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검색어로 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www.bigkinds.or.kr)사의 자체 검색엔진을 사용하였다.

검색기사는 본 연구가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1일 까지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다.

<표 1> “국민연금” 관련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기사 보도량 정량 분석

구분	변수	조선일보	한겨레	
기간별 2018년	3월	39	15	
	4월	32	17	
	5월	47	16	
	6월	32	20	
	7월	74	18	
	8월	77	56	
	9월	32	16	
	10월	49	28	
	11월	72	35	
	12월	61	19	
	2019년	1월	78	36
		2월	61	32
3월		100	52	
4월		56	19	
5월		36	14	
6월		32	16	
7월		34	14	
8월		32	9	
	합계	944	432	
기사주제	정치	154	83	
	경제	512	210	
	사회	211	179	
	문화	15	8	
	국제	82	26	
	지역	26	11	
	과학	22	9	
	스포츠	0	1	
	합계	944	432	

2) 분석방법

수집된 기사를 바탕으로 먼저 정량적인 검색을 실행했다. 또한 언어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사용해 두 신문기사의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빅카인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사에서 나타난 단어정제 및 단어 행렬 매트릭스도 분석하였다.

수집된 단어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약 10개의 문항을 만들어 구글 설문조사 및 서베이몽키(ko.surveymonkey.com)를 통해 2019년 6월 30일~7월 1일 이틀간 수행하여, 두 신문사 독자들이 의제설정을 효과가 나타나지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120명의 신문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할당 없이 임의표집 방법을 이용했다. 표본에 포함된 120명 가운데 남녀의 비율은 각 50%였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25%, 30대 25%, 40대 25%, 50대 이상 25%였다.

신문 독자들의 국민연금에 의제 설정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설정 내용을 담은 7가지 의제설정문항을 구성했다. 이를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독자들의 동의 정도를 측정했다.

<표 2> 국민연금에 대한 의제설정효과 측정 문항(신뢰도 결과)

	측정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크론바하알파
1	국민연금 개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3.282	1.104	.812
2	스튜어드십을 추구해야 한다	3.470	1.080	
3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	3.242	1.156	
4	국민연금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3.130	1.029	
5	국민연금을 신뢰한다	3.452	1.006	
6	국민연금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3.592	1.016	
7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있다	3.780	.925	

7가지 문항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3>과 같이 2개의 요인을 얻었다.

<표 3> 국민연금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측정문항	요인1 경영	요인2 신뢰
국민연금 개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877	
스튜어드쉽을 추구해야 한다	.815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	.810	
국민연금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798	
국민연금을 신뢰한다		.870
국민연금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833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있다		.758
고유값	4.0	2.6
설명된 변량(%)	28.1	17.7

먼저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된 문항을 보면 1) 국민연금 개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2) 스튜어드쉽을 추구해야 한다, 3)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 4) 국민연금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경영방식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1) 국민연금을 신뢰한다, 2) 국민연금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3)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 및 신뢰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요인분석의 구성방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개정 및 스튜어드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정책적 필요성과 개정 방향은 나뉘어 지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중심단어 분석

<표 3>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국민연금’ 관련 중심단어 빈도 비교분석표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언론사별 국민연금 관련 중심단어 빈도분석

순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심단어	빈도	중심단어	빈도
1	스튜어드십 코드	66	스튜어드십 코드	113
2	기관투자자	31	주주권	232
3	주주권	91	대한항공	151
4	한진칼	51	보험료	334
5	대한항공	78	보건복지부	76
6	보험료율	68	한진칼	63
7	보건복지부장관	14	문재인 대통령	31
8	의결권	127	조양호 회장	35
9	자본시장	25	경영참여	58
10	수택책임자전문위원	16	소득대체율	166
11	문재인 대통령	16	한진그룹	50
12	기금운영위원회	31	의결권행사	80
13	수익률	12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9
14	보건복지부	43	경제개혁연대	32
15	기금위	31	전문위	103
16	한진그룹	24	적극적 주주권 행사	40
17	CIO	29	수탁자	102
18	자산운용사	48	공개서한	28
19	가입자	41	보건복지부 장관	16
20	기금운용수익률	22	불법비리	11
21	위원장	45	기관투자자	34
22	연기금	30	경영진	47
23	금융투자업계	23	노후소득보장	39
24	소득대체율	27	가지 방안	12
25	노령연금	11	평균소득대비	6
26	고령화	9	삼성물산	35
27	저출산	13	연금액	27
28	주식시장	15	고차방정식	4

의제는 정보전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두 개의 신문사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제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단순하지만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특정 언론사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용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연금에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추후에 국민연금정책 수립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는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의제와 언론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에게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본 연구는 매체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초기 의제설정 이론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첫째, 본 연구의 한계는 일단 장기간에 ‘국민연금’이라는 의제가 형성되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이라는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 내면화 한 의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언론 노출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2개의 신문 사이트에서만 분석틀을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거론되는 의제설정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도 일차적으로 주요 매체가 일차 의제설정을 한 후 이차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설정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주요 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사 하나만 각각 설정했기 때문에 다른 종합지나 기타 일간지, 경제지 등의 통합적인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다. 같은 맥락으로 독자들이 방송 뉴스를 보았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재 사회에서 방송 뉴스의 영향이 과거보다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키워드 중심의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키워드 설정 문제나 연구방법

소프트웨어의 검색방식에 따라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듯하다.

넷째, 한편 본 연구결과의 주요 연구문제가 아니었지만 설문조사결과를 나이를 바탕으로 각 문항들을 보면 20대 남, 여 집단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점은 상당히 특이할 점으로 보이며 추후에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진숙. 2006.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연구.” 『한국언론학보』, 33권, 7-53.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1-387.

성동규. 2009. “북한 군사위협 관련 보도 분석.” 『신문과 방송』, 52-55. 222-241.

주수정·신성희·이재훈·구창우·정세롬·한겨레(2017). 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Funkhouser, G. R. 1973. “The issues of the Sixties: An exploratory study in the dynamics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37, 62-75.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yengar, S., Peters, M. D., & Kinder, D. R. 1982. “Experimental demonstrations of the ‘Not-so-minimal’ consequences of television news progra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848-858.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76-87.

McCobms, M. E., Gilbert, S., & Eyal, C. H. 1982.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and the press agenda: A replication*.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Boston.

Zucker, H. G. 1978. The variable nature of news media influence, in B. d. Ruben(ed.), Communication Yearbook, Vol. 2, pp. 225-240. New Brunswick, N. J. : Transaction.

[논문접수 2019. 10. 15 ; 심사완료 2019. 11. 10 ; 게재확정 2019. 11. 18]

<Abstract>

The agenda setting effect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

Woong K. Park*

The study tried to find the impact and effect behind the President Moon's national pension fund policy towards the public opinion. The study content-analyzed the two prominent Korean print news papers and found out the effect of agenda-setting.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people's exposure to the print newspaper lead to specific agenda setting effect - which is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in this area.

Key words: national pension fund, agenda setting, president

*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dvertising, and PR Soongsil University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 현상과 즐거움 경험 분석 -40대 여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활용-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실증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 현상과 즐거움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 현상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확장된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을 통하여 다차원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즐거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에 관한 연구는 쾌락적인 즐거움 뿐 아니라 비 쾌락적 즐거움까지 즐거움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Davidson(2018)의 다차원적 즐거움 모델(MULTI-DIMENSIONAL MODEL OF Enjoyment)에 근거하여 요인별로 분류된 즐거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적합한 질문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TV홈쇼핑의 주 고객층인 40대 여성의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40대 초반 미혼 그룹과 40대 후반 기혼그룹 모두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

TV홈쇼핑의 시청과정에서의 즐거움인 ‘기쁨’ 몰입’ ‘관계’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는 ‘유능’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40대 여성들은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와 다차원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하여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TV홈쇼핑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기쁨 몰입 관계 유능

I. 서론

TV홈쇼핑은 TV와 홈쇼핑이 결합된 용어이다. TV홈쇼핑은 TV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이다(한예진, 2011). TV홈쇼핑은 1995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케이블 TV보급정책에 따라 국내 최초로 1995년 8월에 CJ 오쇼핑(사업자명은 HSTV, 당시 39쇼핑), GS 홈쇼핑(사업자명은 HI쇼핑, 당시 LG홈쇼핑)이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에 NS 홈쇼핑(농수산 홈쇼핑), 현대 홈쇼핑, 롯데홈쇼핑(당시 우리홈쇼핑)이 2차 허가를 받아 방송을 시작했다. 2012년 1월 홈앤 쇼핑이 개국했고 2015년에는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쇼핑(당시 공영홈쇼핑)이 개국하면서 현재 총 7개의 TV홈쇼핑이 존재한다.

TV홈쇼핑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TV홈쇼핑은 시청자 입장으로 보면 선호재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TV홈쇼핑은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동시에 홈쇼핑 프로그램 자체의 흥미를 제공해야 하며 선호재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유통공간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유통산업 측면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TV홈쇼핑은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중개서비스(informediary)의 역할을 하는데 판매할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주문, 배송 등을 담당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셋째, 방송 플랫폼 측면의 역할이다. TV홈쇼핑사업자는 채널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제품광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에게 송출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반 PP와는 다른 거래구조를 가진다(정연승, 2009). 따라서 TV홈쇼핑은 유통공급자로서의 측면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로서의 측면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는 매체로 정의할 수 있다. TV홈쇼핑은 유통마케팅 채널로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배송,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잠재적 소비자이자 시청자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최근 TV홈쇼핑 채널은 오락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 허태수(2006)는 공중과 방송 중 인기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성은 그것에 재미를 느껴 고정적으로 챙겨보는 시청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TV홈쇼핑 방송이 재미를 제공한다면 즉,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TV홈쇼핑은 쇼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시청의 재미를 포함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엔터테인먼트는 미디어 영역의 주요한 가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엔터테인먼트는 미디어 뿐 아니라 소비활동에서도 중요한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소비행동에 있어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Babin, Darden, and Griffin, 1994; Babin and Darden, 1995). 1990년대 이후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경쟁전략으로 부상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했는데(Evans, 1999) 오늘날 엔터테인먼트는 쇼핑 경험과 유통마케팅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소매점포에서는 쇼핑센터의 차별화를 위한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된다(박경애, 2004). 따라서 TV홈쇼핑을 시청하는 동안 소비자는 두 가지의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TV매체가 제공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가치이고 또 하나는 소비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가치이다.

TV홈쇼핑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소비활동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과거 선행연구에 의하면 TV홈쇼핑의 이용 동기나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오락성

(Entertainment)이나 ‘재미’는 중요하다는(김현경,2013; 홍금희;2015) 연구결과는 존재하지만 TV홈쇼핑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소비활동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에 관하여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의 가치와 수용자가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즐거움에 관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 현상과 즐거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엔터테인먼트의 개념

엔터테인먼트는 오락으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는 매우 다차원적이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의 오락은 1.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2.환락(아주 즐거워함)¹⁾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어 사전의 오락의 의미는 1.몸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게임, 노래, 춤 등을 하거나 보며 즐기는 일 2.아주 즐거워 함²⁾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오락(엔터테인먼트)의 사전적인 개념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한예진, 2019). Mendelsohn(1966)은 엔터테인먼트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기쁨(pleasure), 재미, 긴장완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가능성, 환상과 놀이 경험을 제공하며 기분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엔터테인먼트는 즐겁고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를 놀이(play)의 한 형태로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다(Vorderer, 2001). 사전적인 개념과 연구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며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즐거움의 추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정의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나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경험하는 감정의 핵심은 주로 ‘기쁨(pleasure) 혹은 즐거움(Enjoyment)’으로 귀결된다. 엔터테인먼트 경험의 핵심에는 대부분의 연구자

1) 표준국어대사전의 ‘엔터테인먼트’의 의미

2) 한국어 사전의 ‘엔터테인먼트’의 의미

들이 Enjoyment, pleasure와 같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Vorderer, 2001) 이는 사실상 모두 ‘즐거움’으로 해석되곤 한다.

2.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 개념의 확장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Enjoyment)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즐거움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는 즐거움의 ‘기분 좋음’의 의미가 단순한 쾌락반응적인 감정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보다 광범위한 정의로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Tamborini, Grizzard, Bowman, Reinecke Lewis and Eden(2011)는 쾌락적인 관점으로만 정의되어 오던 즐거움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디어 즐거움을 “쾌락과 비 쾌락적인 본질적 내적욕구의 충족”으로 보았다. 즉,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 경험하는 즐거움은 쾌락적인 즐거움 뿐 아니라 비 쾌락적인 즐거움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비 쾌락적 즐거움이란 일종의 의미추구적이거나 관계 추구적인 감정을 통하여 경험하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비 쾌락적 즐거움의 요인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즐거움인 관계(relatedness), 개인 스스로의 유능감을 확인하는 즐거움인 유능(competence), 스스로의 자율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즐거움인 자율성(autonomy)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Bosshart and Hellmüller(2009)는 엔터테인먼트 구축이론을 토대로 아래의 <표. 1>과 같이 즐거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감각적인 즐거움이다. 이는 신체를 활용하고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개인감정의 즐거움이다. 이는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기분을 관리하려는 개인의 감정적인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하며 이때의 기분 좋은 상태의 즐거움은 주로 쾌락적 즐거움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치를 활용할 때 느끼는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타인과의 사회적 감정으로서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Bosshart and Hellmüller는 개인의 신체감각, 감정, 인지적 차원 뿐 아니라 타인과의 공감과 동일시 영역까지 즐거움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avidson(2018)는 기존 문헌연구에서 제시되는 즐거움에 관한 관점을 통합

하여 다차원적 즐거움 모델(MULTI-DIMENSIONAL MODEL OF Enjoyment)을 도출하였다. Davidson은 즐거움은 쾌락과 비 쾌락적 즐거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요인화 되어 도출된 결과는 쾌락반응적인 즐거움인 ‘기쁨(Pleasure)’, 집중하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인 ‘몰입(Engagement)’ 스스로의 유능감을 경험하는 즐거움인 ‘유능(competence)’,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추구되는 즐거움인 ‘관계(relatedness)’,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즐거움인 ‘도전/개선(Challenge/Improvement)’이 있다고 하였다.

<표. 1> Bosshart and Hellmüller의 즐거움의 다차원적 속성

엔터테인먼트 구축이론을 통한 즐거움의 분류
감각(Senses): 육체적 능력(physical abilities)의 사용
예: 운동력(motor) 및 감각 활동(sensual activity) 경험, 신체 사용 역량
개인감정(Ego-Emotions): 감정 경험 및 상기
기분관리(Mood management)
재치 / 지식(Wit/knowledge):
지적능력, 재치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인지적
사회 감정(Socio-Emotions): 타인을 느끼고 함께 느끼기
동일시(identification), 공감(empathy)

출처: 한예진 2019

3.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

그렇다면 TV홈쇼핑은 어떤 종류의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이 존재하는 것인가? 앞서 연구자는 TV홈쇼핑은 미디어 채널이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소비활동을 통한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TV홈쇼핑은 시청활동과 소비활동을 통하여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매체임은 틀림없다. 지금까지 TV홈쇼핑 연구는 꾸준히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를 언급해 왔다. 주선희, 구동모(2008)는 TV홈쇼핑의 이용 동기 중 내재적 동기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이상봉(2011)과 박정우, 이영주(2014)는 ‘오락성’이 TV홈쇼핑의 이용 동기 중 하나라고 하였고 김현경(2013)

은 소비자들은 쾌락지향동기가 있기 때문에 TV홈쇼핑에서 쇼핑하려는 동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서 ‘오락성’ 그리고 ‘즐거움’에 관한 정의는 단순한 차원에서의 쾌락적 즐거움만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TV홈쇼핑 연구에서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는 쾌락적 측면으로만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특별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Davidson(2018)의 다차원적 즐거움 연구에 근거하여 감각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쾌락반응적인 즐거움인 ‘기쁨’, 집중하는 상태를 통해 추구되는 즐거움인 ‘몰입’, 화면 속의 인물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경험하는 즐거움인 ‘관계’, 스스로가 타인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안 경험하는 즐거움인 ‘유능’의 차원으로 TV홈쇼핑의 즐거움을 분류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TV홈쇼핑은 방송채널적인 가치 및 소비채널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특수한 매체이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기쁨(Pleasure)

일반적으로 국내의 문헌은 기쁨(Pleasure)과 즐거움(Enjoyment)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 엔터테인먼트 연구에서 즐거움의 정의가 단순한 쾌락추구를 넘어서 내적 욕구로서의 심리적 행복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기쁨(Pleasure)은 즐거움(Enjoyment)의 한 요인으로 구분된다. 기쁨(Pleasure)은 즐거움의 하위차원으로서 신체 자극을 통한 쾌락추구나 감각적인 즐거움의 차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단어이다(한예진, 2019).

Hirschman and Holbrook(1982)은 소비경험이 즐거움, 환상적인 기쁨이나 쾌락적인 감각자극을 제공할 때 본질적으로 소비자는 만족을 경험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소비경험은 감정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소비 경험 중에 만들어지는 이미지 혹은 판타지에는 다양한 정신적인 사건도 포함된다.

TV홈쇼핑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에 해당하는 ‘기쁨’을 경험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TV홈쇼핑에서의 ‘기쁨’은 시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경험하는 감정으로서 흥미롭거나 재미있거나 호기심을 자극, 상상력을 자극, 행복감을 의미한다. 강승묵(2013)은 TV홈쇼핑을 시청할 때 TV홈쇼핑의 팝업광고에 시

선이 오래 머무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TV홈쇼핑의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마치 눈요기(eye shopping)를 하듯 재미로 결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V홈쇼핑의 화면구성이 다채롭고 시각적인 자극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치시키는 이유도 팝업을 통하여 주목도를 높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팝업 뿐 아니라 TV홈쇼핑은 시각 및 청각적 자극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한다. 시각 및 청각적 자극을 통해 1차적으로 반응되는 즐거움은 TV홈쇼핑 연구에서 언급되어지는 쾌락적 즐거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TV홈쇼핑이 유명인을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유명인의 출연이 보증효과(Endorsor Effect)를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유명인의 출연은 그 자체로 시각적인 주목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유명인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유명인을 시청하는 동기는 단순한 놀이적인 동기가 더 크다(Hung, 2014),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명인을 쾌락의 문제들과 연결시키며(Croteau and Hoynes; 전석호; 역 2001) 유명인을 소비하는 동안 시청자는 쾌락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즉 TV화면 속의 유명인을 통해 시청자는 현실의 문제를 잠시 잊을 수 있으며 환상을 통하여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쾌락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2) 몰입(Engagement)

일반적으로 TV홈쇼핑에서의 몰입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심리적 애착정도를 나타내며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소비자의 몰입을 애착, 충성도 등과 같은 소비자 행동 변수를 도입, 개념화하여 측정하고 있다(박주영, 2003). 즐거움의 요인 중 ‘몰입’은 시간의 경과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잡념이 들지 않거나, 화면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몰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되는 개념은 몰입(immersion), 주의 전환(Diversion), 몰두(absorption), 정신집중(concentration) 등이 있는데 인게이지먼트는 플로우(flow)보다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몰입을 의미한다(Davidson, 2018). Lin, Gregor and Ewing(2008)와 Davidson(2018)은 인게이지먼트는 플로우 상태보다 낮은 집중이나 몰입의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고도의 스킬이나 숙련도를 요하지 않는 TV 시청과 같은 상황이다. TV홈쇼핑은 고도의 집중을 요하지 않아도 밝고

즐거움 분위기가 주의환기를 시킬 때 몰입(Engagement)을 경험하게 된다. 정진영, 김경희(2019)는 몰입의 정의를 소비자가 홈쇼핑을 시청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몰두하여 그 자체가 즐거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TV홈쇼핑의 몰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쇼호스트의 시연능력, 화술능력, 외형성과 같은 요인은 몰입에 영향을 미쳤다(조인희, 김춘곤, 2016). 홍금희(2015)는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는 정서적 몰입과 관계적 몰입에 모두 유의한 관계를 미친다고 하였다.

3) 관계(Relatedness)

‘관계(Relatedness)’는 집단이나 다른 개인과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이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yan and Deci, 2002). ‘관계’는 사회적 놀이의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예측되는 경로로서 설명될 수 있다(Tamborini, Bowman, Eden, Grizzard, and Organ, 2010).

Tamborini et al.(2010)는 비쾌락적 즐거움의 하나로 ‘관계(Relatedness)’가 있다고 하였다. Tamborini et al.는 다중 접속 게임을 하는 동안 다른 게임자에게 느끼는 ‘관계’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는데 연구결과 게임자들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다른 게임자에 관해 소속감을 느끼거나 상호의존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의 경험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각하는 동안 경험하는 심리적 행복을 의미하며 비 쾌락적 즐거움의 한 요소이다.

박용기(2004)는 TV홈쇼핑의 쇼호스트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쇼핑행위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하고 점원과 같은 사람들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비대면 상황인 TV홈쇼핑을 시청하고 쇼핑에 참여하는 동안 TV홈쇼핑의 쇼호스트와 상호작용한다. Horton and Wohl (1956)은 시청자가 미디어 속의 등장인물에 관해 친밀한 감정을 형성하면서 인물들과 관계를 갖는 현상은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 social relationship)”이라고 정의한다.

전화연결, SMS, 생방송, 인포머셜 광고와 같은 상호작용적인 도구의 집중적인 사용은 시청자를 끊임없이 방송에 참여시키게 하고 상호작용하게 만든다. TV홈쇼핑과 같은 판매프로그램은 시청자를 또 다른 시청자나 방송 진행자와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를 프로그램의 호스트나 게스트로서 참여하게 만든다(Currás-Pérez, Ruiz-Mafé, and Sanz-Blas, 2011). 실제로 TV홈쇼핑은 생방송 동안 SNS메시지를 통하여 상품과 방송에 관한 의견을 시청자에게 수렴 받아 방송화면하단에 팝업으로 노출시킨다. Cohen(2006)은 TV홈쇼핑과 같은 텔레쇼핑³⁾처럼 쇼호스트가 시청자를 직접 언급할 때 관계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 외에 출연자의 매력이나 호감요소들은 시청자와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에 유의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김현주, 1994; 김유미, 2016)

4) 유능(competence)

‘유능’은 긍정적인 감정의 원천이라고 수많은 연구자들은 말한다(Reis, Sheldon, Gable, Roscoe, and Ryan, 2000; Sheldon and Niemiec, 2006; Sheldon, Ryan and Reis, 1996). Tamborini et al(2010)와 Tamborini et al.(2011)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미디어 즐거움은 “쾌락(hedonic)과 비 쾌락적(non-hedonic)인 본질적 내적욕구의 충족”이며 비 쾌락적 욕구로서의 즐거움 중 하나로 유능성(competence)을 제안한다. 따라서 유능은 즐거움의 요인에 해당한다. Ryan, Rigby and Przybylski(2006)는 개인이 유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심리욕구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기질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유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유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Ryan et al.은 인터넷 게임을 통한 유능감의 충족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 결과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게임 속에서 개인이 유능감을 경험할 때 게임을 더욱 즐겁다고 느꼈고 지속적인 이용 의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소비자 연구는 ‘유능’을 제품과 관련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데 이런 능력은 정보를 검색하는 것, 선택과 의사 결정 및 실제 구매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예: 결제 처리, 보증 및 반품정책이해)가 포함된다(Mallalieu, and Palan, 2006).

3)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표시되는 제품정보에 따라 가정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해 제품 주문, 대금결제를 행하는 정보처리시스템.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40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2017년 마케팅 조사기관인 리서치 엠브레인의 조사결과 TV홈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40대와 50대였고 TV홈쇼핑에서 구매하고 시청하는 집단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연구 결과 구매자 대다수는 여성이었다(Freedberg, 1987; 최창열, 2004).

본 연구는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즐거움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는데 한 가지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주제에 대하여 많은 양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장점이다. 포커스 그룹인터뷰가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다른 점은 토론 참가자들이 의견을 상호교환 한다는 것인데 특히 고객의 감정이나 내면적인 심리, 인식을 수집 할 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연구목적에 적합하다(안명숙, 2015).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TV홈쇼핑을 주 1회 이상 시청하고 1달에 1회 이상 구매하는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40대 여성을 미혼그룹과 기혼그룹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결혼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한 이유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조사 결과 결혼유무에 따른 월 소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확연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따라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시에 그룹 내의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혼 유무로 그룹을 분류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참가자들의 적절한 토의를 위한 구성원의 배합이 필요하고 보통 6~8명의 제한된 참가자들로 그룹을 구성하고자 권장된다(Krueger and Casey, 2014). 본 연구는 6명을 하나의 그룹으로 2개의 그룹을 구성하였고 각 그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2>는 포커스 그룹인터뷰 구성이다.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구성

구분	G1	G2
연령대	40대 초반	40대 후반
결혼여부	미혼(6)	기혼(6)
직업	사무직(2), 프리랜서(2)서비스(2)	주부(4), 서비스(2)
가족 월 소득	평균 380만원	평균 500만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9년 9월 4일~7일 사이 각 그룹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약 60~70분 사이로 진행되었는데 세미나룸에서 진행을 하였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과를 제공하였다.

2. 인터뷰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목적에 중심으로 인터뷰에서 사용될 질문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 미리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전 SNS 메시지로 사전 질문 내용을 전달하였다. 질문방식은 Krueger and Casey(2014)가 제시하는 질문의 구성단계를 토대로 하여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주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의 3단계로 구성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표, 3> 인터뷰 질문 사항

시간	질문방식	질문내용
10분	도입질문	TV홈쇼핑을 언제 주로 시청하게 되십니까?
40분	주질문	1.TV홈쇼핑을 보면서 어떤 경우 흥미 및 재미를 경험하십니까? 2.TV홈쇼핑을 보면서 내가 몰입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3.TV홈쇼핑 출연자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함께하는 듯한 상호작용 감정이 있습니까? 4.TV홈쇼핑을 이용하면서 유능감(뿌듯하거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10분	마무리질문	1.지금까지 TV홈쇼핑의 다양한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IV. 실증분석

1. 도입질문: TV홈쇼핑을 언제 주로 시청하게 되십니까?

도입질문으로 TV홈쇼핑의 시청동기를 질문하였는데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TV홈쇼핑을 시청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그룹 1(미혼)과 그룹 2(기혼)의 비교 결과 TV홈쇼핑을 시청하는 이유는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시청시간대와 즐겨보는 상품 군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그룹1은 늦은 저녁 및 심야시간 혹은 주말에 자주 본다고 응답하였고 패션, 이미용 제품, 여행 방송 시청을 선호하였고 그룹 2는 평일 낮과 저녁시간에 주로 시청을 즐긴다고 하였고 패션, 이미용 제품, 여행 뿐 아니라 식품을 즐겨 본다고 하였다.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TV홈쇼핑의 시청이유는 1)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청 2)습관적인 시청, 3)심심할 때 시청 4)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시청, 5)필요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6)쇼호스트나 출연 연예인이 마음에 들어서, 7)재미있어서 8)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등의 이유로 시청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외 저렴한 상품이 많아서, 반쯤이 편리하니까 등의 응답도 있었다.

2. 주 질문

1) 기쁨 (TV홈쇼핑을 보면서 어떤 경우 흥미 및 재미를 경험하십니까?)

본 질문은 TV홈쇼핑 시청과정에서의 '기쁨'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TV홈쇼핑에서의 '기쁨'은 시청각적인 자극을 통한 쾌락 반응적 감정으로서 흥미롭거나 재미있거나 호기심을 자극, 상상력을 자극, 행복감을 의미한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존 TV홈쇼핑 방송 포맷과 다른 형식의 방송을 통한 콘텐츠적인 재미를 경험하거나 유명인과 같은 연예인이 출연하면 시각적인 자극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밤에 뮤지컬 티켓을 팔았어요. 그때 출연자들이 다 나왔는데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홈쇼핑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토크쇼 보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뮤지컬 한 장면이라고 하면서 같이 노래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런 걸 홈쇼핑에서 본다는 자체가 좀 색다른 건 했어요. (그룹1, F2)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게 그때 CJ에서 어떤 가수가 나와서 자기 앨범을 팔았어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음악 프로처럼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홈쇼핑에서도 이런 걸 다 하는구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니 재밌기도 하고요(그룹1, F3)

자기가 입은 거 보여주면서 설명하잖아요. 입은 거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입으면 되겠네, 저거 입고 저렇게 입고 그러면 괜찮을까?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해야 되나? (그룹2, F2)

그리고 콘텐츠적인 재미나 매력적인 등장인물 뿐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제품이 등장할 때 시청자극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엄청 유명하지 않았어요? 홈쇼핑에서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 거 같긴 해요. 얼마 전에는 새치커버 파우더도 그렇고 어? 저거 뭐야? 좀 신기한 거 색다른 그런 거(그룹2, F3)

2) 몰입(TV홈쇼핑을 보면서 내가 몰입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본 질문은 TV홈쇼핑 시청과정에서의 ‘몰입’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즐거움의 요인 중 ‘몰입’은 시간의 경과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잡념이 들지 않거나, 화면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그룹은 동일하게 TV홈쇼핑 시청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최신상 제품이나 유명 브랜드, 평소 관심 있거나 유행하는 제품을 시청할 때 몰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누구나 일단 신상에 눈이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홈쇼핑에서 최신상이라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유심히 보게 되요(그룹1, F3).

백화점가서 지금 당장 안 살거면 안에까지 다 열어서 보여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홈쇼핑에서는 명품가방도 쇼호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까지도 다 보여주잖아요. 궁금한 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당장 안 산다고 해도 아.. 저건 저렇게 생겼고 저런 디자인이구나 좀 유심히 보죠(그룹1, F6).

그리고 특히 유명인이 등장하거나 제품에 관한 시연이 진행 될 때 몰입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상품군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이 화면에서 신선한 방식으로 시연할 때 몰입이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몰입에 관한 응답에서 자주 언급된 상품군은 패션과 이미용이었다. 또한 쇼호스트의 메시지의 설득 요소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설득 요소 중 몰입하게 되는 원인은 가격 할인 메시지나 갑자기 말을 멈추고 더 천천히 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화술은 순간적인 몰입을 유발한다고 응답하였다.

화면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 before after가 너무 다르잖아요. 저대로만 되면 진짜 대박인데 저거 쓰면 진짜 저렇게 되나? 피부가 바르면 바르는 대로 얼굴이 확 변하는 거 보면 진짜인가? 의심이 되는 거도 있는데 진짜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생방송 중에 직접 하는 거 집중해서 보거든요(그룹1, F5)

파운데이션 방송인데 남자 연예인 00가 나와서 얼굴에 했어요.
어? 저 사람도 홈쇼핑에 나오네? 그런 것도 있었고
남자가 너무 얼굴에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되구요.
그 방송 완전 집중해서 본거 같아요(그룹1, F4)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거보다 우선적으로 화장품 방송할 때? 그리고 먹는 거 같은 경우에도

요리장면도 물론 집중이 되지만 직접 그 포장을 뜯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내 눈으로 내가 뭘 받는지를 확인을 하는 순간이잖아요(그룹2, F5).

딱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지? 싶는데 그때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진짜 봐야 할 거 같더라고요. 사람을 확 집중시키는게 쇼호스트 능력 따라 조금 다른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그룹2, F2)

최저가다, 마지막 특가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심리는 다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있었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줌 시선이 가는 거 같아요. 기왕이면 좋은 제품 싸게 잘 사고 싶으니까 싸다고 하면 일단 한번 보고~ 퀄리티는 어떤데? 그런 생각으로 어떤가 한번 잘 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그룹2, F1).

그러나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평소 관심이 있던 제품이 아니라면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 설명이 부족하고 가격 할인 메시지만 강조할 경우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아무리 싸다 싸다 해도 딱 봤을 때 내 취향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 관심이 안가요. 바로 채널 돌리죠. 싸다 싸다 그러면서 보고싶은 건 안 보여주고 확인도 안 시켜주고(그룹 2, F6).

3) 관계(TV홈쇼핑 출연자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함께하는 듯한 상호작용 감정이 있으십니까?)

본 질문은 TV홈쇼핑 시청과정에서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즐거움의 요인 중 ‘관계’는 출연하는 쇼호스트 및 유명인 등에게 호감 및 상호작용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인터뷰 결과 두 그룹 모두 쇼호스트나 유명인과 같은 출연자에게 호감이나 친숙한 감정 또는 함께하는 듯한 ‘관계’의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매력적인 외모나 세련된 말투에 호감을 느낀다

는 응답과 함께 공감하는 대화 분위기 등을 연출하는 쇼호스트의 말투나 대화 스킬에 호감을 느낀다고도 응답하였다.

요즘은 연예인보다 더 예쁜 쇼호스트도 많은 거 같아요. 약간 연예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딱 보면 와~ 예쁘다 그런 생각 드는 쇼호스트도 있거든요. 잘생긴 쇼호스트도 많고요, 솔직히 외모적으로 딱 봤을 때 예쁘다 잘생겼다 그러면 호감이 생기는 건 맞는 거 같아요(그룹 1, F2).

자기가 입어보고 보여주고 하면서 그걸 팔고 홍보하고 직업인 거잖아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모습에서 눈에 띄면 그러면 처음에 호감이 딱 가는데 근데 외모가 호감이 가지만 보고 있는데 만일에 말하는 게 너무 비호감인 경우가 있잖아요(그룹1. F3).

일방적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스타일은 비호감이거든요. 편하게 자기 경험담 같은 거 얘기하면서 시청자랑 대화하듯이 그럴 때 호감이 가는 거 같아요. 너무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그런 거는 별로고요. 지금 몇 시인데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함께 대화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쇼호스트가 좋은 거 같아요(그룹2. F3).

00보고 있으면 그 호스트는 좀 친숙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마른 사람이 나와서 저도 요즘 살이 쪘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면 진짜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호스트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좀 보면 통통한 거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도 딱 시끄럽게 안하고 차분하고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그룹2. F1).

따라서 시청하는 동안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외모 매력성과 호감도와 같은 비언어적 특성 뿐 아니라 화술, 대화스킬 등과 같은 언어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유능(TV홈쇼핑을 이용하면서 유능감을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까?)

본 질문은 TV홈쇼핑 시청과정에서의 ‘유능’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즐거움의 요인 중 ‘유능’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느낌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TV홈쇼핑에서의 ‘유능’은 제품과 관련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데 이런 능력은 정보를 검색하는 것, 선택과 의사 결정 및 실제 구매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예: 결제 처리, 보증 및 반품정책이해)가 포함된다(Mallalieu, and Palan, 2006).

그룹1과 그룹2의 대화 속에서 TV홈쇼핑의 이용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유능은 구매 후 제품을 체험하면서 예상보다 제품이 더 좋아서 경험하는 감정,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난 후의 뿌듯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유능감을 공감하기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그룹1. F1, F3 그룹2 F4, F6)도 있어서 ‘기쁨’, ‘몰입’, ‘관계’의 감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덜 경험하는 감정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홈쇼핑 보다가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빨리 전화해서 이것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문하거든요. 엄마가 못하는 걸 도와드릴 거니까 해드리고 나면 뿌듯하다 그런 생각 한 거 같네요(그룹1. F2).

화면으로만 본거니까 솔직히 완전한 확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더 괜찮은 거예요. 음 내가 선택을 잘 했나본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안목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그룹1. F4)

제가 수정하려고 팩트를 꺼냈는데 옆에서 그거 어때? 괜찮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써보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응, 이거 괜찮아 홈쇼핑에서 샀어. 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당신 말) 듣고 그거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 추천해줄 때? 그리고 그걸 정말 그 사람이 살 때! 기분도 좋고 으쓱한 느낌에 유능한 기분도 들었던 거 같아요(그룹2. F3).

뿐만 아니라 유능감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때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바겐세일의 즐거움은 일반쇼핑과 특별할인판매를 비교함으로써 남들보다 나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소비자의 욕망과 능력을 반영한다(Tauber, 1972).

타임세일인가 그렇게 해서 진짜 싸게 팔았는데 이벤트 적립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비교하니까 마트 최저가 보다 싸게 산 거 같았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마트보다 싼 거를 찾아가지고 적립금에 이겨저거 다 해서 샀을 때 그럴 때는 남들보다 제가 더 잘 한 거잖아요?(그룹 2. F5).

화면에 막 시간 뜨잖아요. 가격도 좋고 진짜 괜찮아서 시간 못 채우고 매진 될 거 같다고 하는데 자동주문으로 막 결제하고 나서 (쇼호스트가) 매진입니다, 수화기 드신 분들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완전 내가 어디 안에 들어온 거 같은, 예를 들자면 어떤 커트라인이나 등수 안에 들어온 느낌? (그룹2. F1)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룹2인 기혼그룹은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는 동안 대화의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고 하였고, 딸이 있는 경우 자녀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패션이나 화장품의 다구성이 만족스럽고 가족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식품의 다구성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룹1인 미혼그룹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패션이나 화장품, 식품의 다구성이 부담스러워 구매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룹1(미혼)은 모바일 생방송을 시청한다고 하였으나 그룹2(기혼)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V. 결론

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 현상과 즐거움에 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TV홈쇼핑을 주로 시청하는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TV홈쇼핑을 언제 시청하게 되십니까? 라는 도입 질문을 통하여 TV홈쇼핑 시청 동기 및 시청 패턴을 파악해보았다. 그룹별로 결혼 유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로 인하여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와 즐겨보는 상품군의 차이를 보였으나 시청 동기는 그룹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V홈쇼핑을 시청하거나 이용하는 이유로 1)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청 2)습관적인 시청, 3)심심할 때 시청 4)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시청, 5)필요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6)쇼호스트나 출연 연예인이 마음에 들어서, 7)재미있어서 8)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TV홈쇼핑의 시청동기에 관한 선행연구(Talarzyk, 1987; Harden, 1996; 김봉철, 문주원, 최명일, 201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응답이었는데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쾌락적 욕구(hedonic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여가를 위해, 외로움을 덜기 위해,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쇼핑호스트를 보기 위해, 다른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기 위해, 지식습득, 시간보내기 등의 이유로 TV홈쇼핑을 시청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김봉철 외(2014)는 TV홈쇼핑은 일반적 TV를 시청하려는 동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TV홈쇼핑을 시청할 때 일반적인 TV프로그램처럼 즐기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도 비슷하였는데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하여 제품구매 목적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TV홈쇼핑을 시청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 질문을 통하여 즐거움의 요인인 ‘기쁨’ ‘몰입’ ‘관계’ ‘유능’에 관한 경험을 파악하였다. TV홈쇼핑의 즐거움의 요인 중 ‘기쁨’을 경험하는 요인은 첫 번째는 새로운 방송 콘텐츠로 인한 흥미, 두 번째는 쇼호스트나 유명인과 같은 등장인물에 관한 호기심, 세 번째는 색다른 제품이었다. 시청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홈쇼핑 방송 포맷과 다른 예능형식이 가미되는 쇼퍼데

인먼트 콘텐츠의 편성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10년 전에 한국의 TV홈쇼핑 방송의 특징을 언급할 때 오락과 정보가 제공되는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information + entertainment의 합성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는데(박성진, 2009) 이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TV홈쇼핑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가 아니라 쇼(Show)와 엔터테인먼트가 접목되었다는 쇼퍼테인먼트(shoppertainment, 쇼핑에 재미를 더한 개념)라고 불리울 정도로 시각적 재미를 충족시키는 예능 쇼 형식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TV홈쇼핑의 쇼퍼테인먼트 콘텐츠의 특징을 대표하는 두 가지는 색다른 포맷의 방송 형식과 유명인의 출연일 것이다. 기존 TV홈쇼핑에 비하여 예능 요소가 확대된 쇼퍼테인먼트 콘텐츠는 젊은 층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채널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⁴⁾

인터뷰 결과 TV홈쇼핑의 즐거움의 요인 중 ‘몰입’을 경험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내용은 제품을 통한 몰입과 유명인의 등장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응답 중 유행하는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화면에 몰입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품을 시연하는 장면에서 몰입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제품시연과 몰입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특히 상품군 중에서 패션 및 이미지용 상품을 시연하는 모습에서 몰입한다는 응답이 많고, 사용 전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이나 유명인이 능숙하게 시연하는 모습에서 몰입한다고 응답하여 뷰티제품방송에서의 시연과 유명인은 몰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뷰티제품 시연이 시청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시연모델의 매력명성은 시청몰입에 유의하다고 한 연구(정진영 외, 2016), TV홈쇼핑에서 쇼호스트의 시연능력, 화술, 외형성은 몰입에 유의하다고 한 연구(조인희, 2016)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쇼호스트의 설득 메시지 중 특히 할인 메시지에 몰입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가격할인요소도 몰입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가격할인 메시지만 강조되고 제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때 오히려 제품에 관한 신뢰성과 몰입도가 반감된다고 응답하여 가격

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2202109976817009&andref=naver

할인 메시지를 통한 몰입 유도는 제품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V홈쇼핑의 즐거움의 요인 중 ‘관계’는 출연자의 외모 매력성과 함께 대화 스킬이나 말투와 같은 화술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여 쇼호스트나 등장인물의 비언어적 특성 뿐 아니라 언어적 특성도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는 TV홈쇼핑은 단순히 외모우수성만 있을 때 시청자가 호감을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외모적인 매력이 호감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정한 말투나 상호 공감하는 대화 스킬이 외모 매력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주(1994)와 김유미(2016)는 출연자의 매력이나 호감요소들은 시청자와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에 유의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인터뷰 결과도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TV홈쇼핑의 즐거움의 요인 중 ‘유능감’은 두 그룹 모두 타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고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기대보다 제품이 만족스러울 때 스스로에게 경험하는 감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TV홈쇼핑의 타임세일전략을 통하여 마감시간 안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될 때 스스로 유능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있었다. ‘유능’에 관한 응답에서의 특징은 ‘기쁨’, ‘몰입’, ‘관계’는 두 그룹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감정이라고 하였으나 ‘유능’은 공감하기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응답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TV홈쇼핑에서의 즐거움의 요인으로 ‘유능’을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품이 기대보다 만족스러울 때 스스로의 유능감을 경험하거나 타인의 제품구입에 도움을 주고 난 후 유능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두 그룹 모두 동일하였으므로 제품구입과정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느낄 때는 공통적으로 유능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능감은 Tauber(1972)의 주장처럼 일반 상품과 특별할인판매를 비교함으로써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소비자의 욕망과 능력을 반영하므로 유능을 경험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V홈쇼핑에서 경험하는 ‘유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함의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TV홈쇼핑의 즐거움의 다양한 차원에 관하여 지금까지 논의해 본 결과 얻을 수 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TV홈쇼핑은 시청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 뿐 아니라 소비활동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미디어를 통하여 제품판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은 TV프로그램 장르적 특징을 통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포맷으로 진화하고 있다. 윤태진, 옥미애(2007)는 TV홈쇼핑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TV홈쇼핑은 다양한 텔레비전 장르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새로운 종류의 장르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TV홈쇼핑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즐거움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본 인터뷰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응답자들은 TV홈쇼핑을 시청하고 쇼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박정우, 이영주(2014)는 TV홈쇼핑을 오래 시청할 때 홈쇼핑에서 반복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청을 오래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시간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홍금희(2015)는 TV홈쇼핑은 재미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홈쇼핑만이 줄 수 있는 방송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였다. 김현경(2013)은 TV홈쇼핑의 시청과정에서 재미를 경험할 때 소비자는 TV홈쇼핑 채널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한 재미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지는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즐거움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에 관한 향후 연구는 미디어 측면과 소비활동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TV홈쇼핑의 즐거움의 다양한 차원인 ‘기쁨’, ‘몰입’, ‘관계’, ‘유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즐거움을 위한 요인 중 첫 번째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서의 즐거움, 두 번째는 매력적인 출연자를 보거나 상호 공감하는 즐거움,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즐거움이었다. 김현경

(2013)은 TV홈쇼핑은 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일반적 사실보다는 TV매체를 활용한다는 채널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미’와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TV홈쇼핑이 정보전달 중심의 방송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예능적 요소를 가미시킬 때 ‘보는 즐거움’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V홈쇼핑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TV홈쇼핑의 매력적인 출연자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 그리고 외모 매력성과 호감성이 뛰어난 쇼호스트로 나눌 수 있는데 유명인은 출연하는 자체가 시각적 자극을 통한 ‘기쁨’의 요인이었고 유명인이 제품 시연을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은 ‘몰입’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쇼호스트가 외모적으로 우수하거나 호감 있는 대화스킬을 구사할 때 ‘몰입’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감정인 ‘관계’도 경험한다고 응답하여 유명인과 더불어 쇼호스트도 TV홈쇼핑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Sood(2002)는 쇼핑호스트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자는 그들과 동일시하고자 하고, 말과 행동에 주목한다고 하여 쇼호스트와의 상호작용은 호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TV홈쇼핑의 등장인물은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외에 구매의도에도 유의하다(박웅기, 2004). 따라서 TV홈쇼핑은 어떤 출연자를 등장시켜야 시청자에게 ‘몰입’과 정서적 유대를 일으키는 ‘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경쟁력 있고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즐거움의 요인이었다. 김현경(2013)은 ‘제품력’은 TV홈쇼핑을 시청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다른 채널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독특한 제품, 동시에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에 관한 소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인터뷰 결과 경쟁력 있는 제품은 ‘관계’를 제외한 모든 즐거움의 요인에 언급되었다. 유행하거나 새로운 제품은 ‘기쁨’과 ‘몰입’의 요인이 되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기대보다 흡족하여 경험하는 사후 만족과 타인에게 제품을 추천하고 난 후의 ‘유능’을 경험하는 감정과도 연결되므로 TV홈쇼핑이 우수하고 차별된 제품을 선택하여 방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할인된 가격도 즐거움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가격 할인 메시지는 ‘몰입’, ‘유능’을 경험한다고 응답되었는데 가격할

인 메시지가 순간적인 ‘몰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때는 스스로의 유능감을 확인하는 요인도 될 수 있었다. Chandon, Wansink, and Laurent(2000)는 소비자가 할인을 받을 때 자신이 현명한 쇼핑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joy)을 경험한다고 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하는 것은 스스로의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태수(2006)는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때의 엔터테인먼트이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될 때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엔터테인먼트이다. 그러므로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는 시청 및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TV홈쇼핑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은 단순히 시청을 통해 경험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V홈쇼핑은 보는 재미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과 소비하는 동안 경험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를 시청하는 동안 경험되는 것 뿐 아니라 미디어 시청과정과 소비활동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이 동시에 논의될 때 비로소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40대 여성이 TV홈쇼핑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즐거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토론자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 등 여러 외부환경적인 제약으로 2개의 그룹만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더 많은 그룹의 인터뷰 진행이나 즐거움의 각 요인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TV홈쇼핑을 시청하는 주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선별한 것이기는 하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선정에 있어 4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TV홈쇼핑 전체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객관성을 입증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를 미디어의 관점과 소비활동의 관점에서 모두 논의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차원의 즐거움의 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 TV홈쇼핑을 이용하는 동안 경험하는 즐거움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비록 비교적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론을 다수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TV홈쇼핑의 엔터테인먼트 현상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로는 포괄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즐거움의 각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승목. 2013. “CATV 홈쇼핑 프로그램의 영상구성 방식에 대한 시선추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6), 502-526.

김유미. 2018. TV 기상캐스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요인이 날씨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 학연구』, 18(4), 72-96.

김봉철, 문주원, 최명일. 2014.. “TV 홈쇼핑 방송의 시청동기가 시청만족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00, 264-291.

김현경. 2013. “채널특성과 쇼핑동기가 시청만족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품학연구』, 31(1), 17-29.

김현주. 1998. “TV뉴스 앵커의 메시지 전달능력과 공신력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10권, 139-165.

박경애. 2004.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요소 구별: 소비자 반응에 의한 탐색적 분석” 『마케팅과학연구』 14.

박성진, 2009. 『한국의 TV홈쇼핑』,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박용기. 2004. “CATV 홈쇼핑 프로그램 쇼(핑)호스트에 대한 의사사회적 현

상, 전문성, 그리고 동질성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5(5), 241-256.

박정우, 이영주. 2014. “디지털유료방송가입자의 TV 홈쇼핑 채널의 시청행위와 구매동기가 반복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8(3), 36-58.

안명숙. 2015. “지역호텔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분석: 포커스 그룹인터뷰 활용”. 『호텔관광연구』 (2015): 144-163.

윤태진, 옥미애. 2007. “시청과 소비, 그리고 즐거움: 홈쇼핑 채널 시청자들의 일상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5(4), 25-45.

이상봉. 2011. “TV 홈쇼핑 채널의 이용과 충족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241-249.

정진영, 김경희. 2019. “홈쇼핑 뷰티 제품 시연에 따른 소비자의 시청몰입 및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복문화』, 22(2), 133-143.

정연승. 2009. “TV 홈쇼핑 산업 제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 『유통연구』, 14(5), 107-128.

조인희, 김춘곤. 2016. “TV 홈쇼핑 쇼호스트의 실연에 의한 소비자 몰입도가 상품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 10(3), 115-127.

주선희, 구동모. 2008. “TV 홈쇼핑 이용동기와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수줍음과 놀이성향이 미치는 조절적 영향”. 『경영연구』, 23, 365-397.

최창열. 2004. “TV 홈쇼핑 이용자의 구매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유통경영학회지』, 7(2), 85-110.

한예진. 2011. “TV홈쇼핑시청에 관한 수용유형연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_____. 2019. “TV홈쇼핑의 다차원적 쇼핑동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허태수. 2006. “홈쇼핑과 Shoppertainment”. Ceri 『엔터테인먼트연구』, 6, 187-193.

홍금희. 2015. “TV홈쇼핑 서비스품질의 관계몰입과 고객충성도에 대한 영향-패션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9(6).

해의문헌

Babin, B. J., Darden, W. R., and Griffin, M. 1994. "Work and/or fun: Measuring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4), 644-656.

Babin, B. J., and Darden, W. R. 1995. "Consumer self-regulation in a retail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ing*, 71(1), 47-70.

Bosshart, L., and Hellmüller, L. 2009. "Pervasive entertainment, ubiquitous entertainment". *Communication Research Trends*, 28(2): 3-20.

Chandon, P., Wansink, B., and Laurent, G. (2000). "A benefit congruency framework of sales promotion effectiveness". *Journal of Marketing*, 64(4), 65-81.

Cohen, J. 2006. "Audience identification with media characters". *Psychology of Entertainment*, 13, 183-197.

Currás-Pérez, R., Ruiz-Mafé, C., and Sanz-Blas, S. 2011. "What motivates consumers to teleshopping? the impact of TV personality and audience interaction". *Marketing Intelligence and Planning*, 29(5): 534-555.

Davidson, S. 2018.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joy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enjoyment scale (enjoy)".

Evans, M. 1999. "Let us entertain you". *Journal of Property Management*, 64(2): 54-59.

Harden, A. 1996, "TV shopping: a summary of women's attitudes gained through focus group discussion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8(4), 58-62.

Hirschman, E. C., and Holbrook, M. B. 1982. "Hedonic consumption: Emerging concepts, methods and propositions". *The Journal of Marketing*, 92-101.

Horton, D., and Wohl, R. R.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Psychiatry*, 19, 215-229.

Hung, K. 2014. "Why celebrity sells: A dual entertainment path model of brand endorsement". *Journal of advertising*, 43(2), 155-166.

Krueger, R. A., and Casey, M. A. 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s".

Lin, A., Gregor, S., and Ewing, M. 2008. "Developing a scale to measure the enjoyment of web experienc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22(4), 40-57.

Mallalieu, L., and Palan, K. M. 2006. "How good a shopper am I? conceptualizing teenage girls' perceived shopping competenc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Review*, 2006, 1.

Mendelsohn, H. 1966. *Mass Entertainment*. New Have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Park, J. 2003. "The effect of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customer satisfaction on trust, commitment, and customer loyalty behavior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3.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and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Ryan, R. M., Rigby, C. S., and Przybylski, A. 2006. "The motivational pull of video ga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Motivation and Emotion*, 30(4):344-360.

Sheldon, K. M., and Niemiec, C. P.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Sood, S. 2002. "Audience involvement and entertainment-education". *Communication Theory*, 12(2): 153-172.

Tauber, E. M. 1972. "Marketing Notes and communications: why do people shop?". *Journal of marketing*, 36(4), 46-49.

Talarzyk, W. W. 1987. "In home shopping: Impact of television shopping programs Columbia Institute for Tele-Information", Columbia Business School.

Tamborini, R., Bowman, N. D., Eden, A., Grizzard, M., and Organ, A. 2010.

“Defining media enjoyment as the satisfaction of intrinsic needs”. *Journal of Communication*, 60(4), 758-777.

Tamborini, R., Grizzard, M., Bowman, N. D., Reinecke, L., Lewis, R. J., and Eden, A. 2011. “Media enjoyment as need satisfaction: The contribution of hedonic and nonhedonic needs”. *Journal of Communication*, 61(6), 1025-1042.

Vorderer, P. 2001. “It’s all entertainment—sure. but what exactly is entertainment?” *communication research, media psychology, and the explanation of entertainment.*

번역서

Croteau, D., Hoynes, W. 전석호. 2001. 『미디어 소사이어티: 산업 이미지 수용자』. 서울: 사계절 (원전명은 Media / Society :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참고사이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2202109976817009&ref=naver

[논문접수 2019. 10. 24 ; 심사완료 2019. 11. 22 ; 게재확정 2019. 11. 25]

<Abstract>

Analysis of Entertainment Phenomena and Enjoyment Experience of TV Home Shopping

- Focused on interviews with women focus groups in their 40s -

Ye - Jin, Han*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entertainment phenomenon and pleasure of TV home shopping. First of all, we describe the entertainment phenomenon of TV home shopping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and the concept of entertainment and the various dimensions of enjoyment that can be explained multi dimensionally through extended entertainment are described. The study on enjoyment through entertainment has expanded the scope of enjoyment by saying that not only pleasure but also non-pleasing pleasure constitutes pleasure. Based on Davidson (2018)'s multidimensional fun model (MULTI-DIMENSIONAL MODEL OF ENJOY), this study classified pleasure by factor and conducted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ppropriate questions were selected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women in their 40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both the unmarried group in their early 40s and the married group in their late 40s reported experiencing Pleasure, Engagement, and Relatedness. And except for some, both groups responde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competence', and they experienced multi-dimensional enjoyment through entertainment of TV home shopping. This study subdivided the types of enjoyment of TV home shopping that provide various types of entertainment contents. And it is significant that it was verified empirically by focus group interview.

key words: TV home shopping Enjoyment Entertainment pleasure Engagement Relatedness competence

* Division of Media and Arts Graduate School of Media, Sogang University

부 록

- 심사규정
- 연구윤리규정
- 투고규정
- 편집규정

『사회과학논총』 심사규정

제1조(심사대상)

본 규정은 『사회과학논총』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연구소의 『논문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제2조(발간횟수 및 일자)

『사회과학논총』은 2017년호 부터 1년에 2회, 즉 5월 31일, 11월 30일에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간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전공분야와 전국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필요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6. 임기 내에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활동)

1.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논총』의 편집 및 발행의 총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 게재논문의 성격 등 『사회과학논총』 발행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편집위원장은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

1. 투고된 논문 한 편당 세 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해당 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저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하며, 특히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적인 심사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논문에 대해 게재·일부수정 후 게재·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분류하여 평가한 심사보고서와 심사논문에 관한 상세한 논평을 담은 논문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
6.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저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6조(심사방법)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익명(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사 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논문의 심사방법은 본 연구원의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심사의 기준)

논문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투고자격 여부
 - (2) 논문투고규정 준수 여부
2. 내용심사는 3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
 -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8조(심사의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 초청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결정)

1.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2. 내용심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게재가능(A): 일부 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2) 수정 후 게재(B): 수정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 (3) 전면수정 후 재심(C):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 (4) 게재 불가(D): 부적합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된 논문을 1) 게재, 2) 일부수정 후 게재, 3) 전면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별도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1) 게재: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적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로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이 사실을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용된다.
 - 2) 일부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수정정도를 평가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를 다시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도록 한다.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결정한다.
 - 4) 게재불가: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게재불가로 결정

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결과 판정 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 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논문 게재)

1. 심사결과 처리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평가시 논문집에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1)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2)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4. 논문의 게재순서는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한다.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사회과학논총』에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지 원고 모집시 연구윤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과학논총』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논문의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한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주시되, 해당 논문은 심사 및 게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관련 학술지 편집자에게 통보합니다.”

제2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소가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이다.

제3조(표절·위조·변조 및 중복게재 정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는 연구수행 및 투고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절차 없이 도용하거나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 내용의 일부를 출처 제시를 생략하고 본인의 생각인 것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3. 변조: 연구자료 및 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훼손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

4.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연구자의 기 출간된 연구물을 새로운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투고한 경우

제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한을 가지며,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연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며,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연구자가 소명 등의 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명행위 등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이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1. 논문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목록에서 삭제되며, 이후 발간되는 『사회과학논총』

- 과 사회과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최종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

1. 논문의 투고,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정보 등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할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논문 게재, 탑재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세미나)

1. 교내·외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연구윤리세미나를 개최한다.
2. 세미나의 강연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투고규정

1. 『사회과학논총』은 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술지이며 여기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영문 원고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논문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하며, 석사과정 연구자는 교신저자인 지도교수와 함께 공동연구자의 자격으로 투고할 수 있다.
2. 본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사회과학논총』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하며,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한다. 다만, 해당 호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는 발간예정일 45일 전까지(각각 4월 16일, 10월 15일)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전까지 투고하더라도, 투고논문의 수에 따라 다음호에 게재될 수 있다.
3.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한호에 동시에 게재할 수는 없다.
4.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1) 투고신청서와 (2) 워드프로세서(한글 97 이상)를 이용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를 아래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한다. 투고신청서는 본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다. Email: iss@ssu.ac.kr
(<https://iss.ssu.ac.kr/modules/doc/index.php?doc=intro>)
5. 논문분량은 A4 용지 20매(참고문헌, 초록 포함)로 제한한다. 논문이 2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게재료 1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6. 타인의 논문이나 자신의 다른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한 내용을 포함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7. 유사한 시기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심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8. 학위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 첫 페이지에 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9.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한 편당 90,000원의 심사료를 다음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게재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9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은행 1002-359-483614 예금주: 박웅기
10.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한 편당 100,000원의 게재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1.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백마관 213호
12.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7년 3월 이후부터 『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13.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 검증을 실시하고, ‘표절검증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이 전된 저작권은 게재된 논문을 모든 기록 및 전자매체를 통해 수록, 출판, 전송, 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저작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논문

이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한,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논문 제출처: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주소: (156-74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 E-mail: iss@ssu.ac.kr
- TEL: (02) 820-0844 / FAX: (02) 820-0835

『사회과학논총』 편집규정

1. 논문의 투고는 반드시 아래의 편집양식 규정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환된다.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논문의 편집은 한글 hwp 또는 word 파일로 작성하며, 논문의 전체 분량은 A4 2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1) 글꼴: 신명조, 언어: 대표
- 2) 글자 크기: 큰 제목 11.5 pt, 작은 제목 11 pt, 본문 및 참고문헌 10.5pt, 요약문 9.5pt, 각주 및 인용문단 9pt, 그림 및 표 8pt
- 3) 글자모양: 상대크기 100%, 장평 100%, 글자위치 0%, 자간 0%
- 4) 문단모양: 첫 줄 들여쓰기 10pt, 줄 간격 16.5pt,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간격 0, 최소공백 60
- 5) 편집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66.0mm, 길이 237.0mm, 용지방향 좁게
- 6) 용지여백: 위 21mm, 아래 23mm, 좌·우 각 22mm, 머리말·꼬리말 각 9mm, 제본 0mm
- 7) 문 및 영문요약은 요약문_미화, 대표, 신명조 9.5 형식으로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하되 주제어 및 Key Words(영문 첫 글자는 대문자)를 각각 4-5개씩 포함한다.

2.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되어야 한다.

- 1) 논문제목
- 2) 성명
- 3) 국문초록(한글 10줄 이내, 주제어)
- 4) 서론(연구배경, 연구질문, 선행연구 등)
- 5) 연구방법(기본틀, 논리, 모형 등)

- 6) 연구결과
- 7) 함의 및 결론(연구결과의 반복 지양)
- 8) 참고문헌
- 9) 영문초록(500단어 내외, Key words)
- 10) 부록(필요한 경우)

3.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한다. 절은 ‘I., II., III...’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 ‘i), ii), ...’를 따른다. 표나 그림은 세분화 없이 일련번호를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부여한다.

4. 국문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문 다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 논문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나 감사의 글 또는 연구지원 기관 등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5.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장, 절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 (1)', (1)", ...’를 사용한다. 단, log, ln, max 등의 기호는 정자체로 표기하고, a/b+c와 같이 혼동되기 쉬운 표현은 (a/b)+c나 a/(b+c)로 명확히 표현토록 한다.

6.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 예 1) Barnett, Offenbacher, and Spindt(1084)와 조용범(1972)에서 지적된.....
- 예 2) 산업 정책의 기존 연구(Leon and Bradlet, 1981; Reich, 1982) 들을 종합하면.....
- 예 3) 실시해 왔다(홍길동, 1983: 1-15).

7. 번역서의 경우 본문인용은 (원저자, 원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번역서 및 일간지 기사자료의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본문인용: (Schivelbusch, 1996)

예) 참고문헌:

Schivelbusch, Wolfgang. 1996.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 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und Zeit im 19. Jahrhundert* (박진희 역. 『철도 여행의 역사 -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울: 궁리).

경주신문. 2005.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마련을.” (4월 8일).

8.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의 순서는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최신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_____’로 인명을 대체한다.

10. 참고문헌의 표시는 반드시 아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 ”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 이중격쇠 『 』로, 보고서 및 발표논문집의 경우 꺾쇠 「 」로 하며,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작성방법은 저자, 년도,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 권(호), 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 예>

① 논문

- 서문기. 2008.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5(4): 105-119.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의 사회신뢰의 형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7.
-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지역사회학』. 5(1): 41-82.
- _____.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여름호: 65-93.
- Nicholson-Crotty, S. 2005. “Bureaucratic Competition in the Policy Process.” *Policy Studies Journal*. 33(3): 341-360.
- Freeman, N. and D. Hew. 2002. “Rethinking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SEAN Economic Bulletin*. 19(1): 1-5.

② 저서

- 좌승희. 2008.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서울: 지평.
- 차종천. 1990.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193-212. 서울: 성원사.
-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 Basic Books.
- Lange, M. and D. Rueschemeyer. 2005. *States and Development: Historical Antecedents of Stagnation and Advance*. London: Macmillan.
- Borner, S., F. Bodmer, and K. Markus. 2004. *Institutional Efficiency and its Determinants: The Role of Political Factors in Economic Growth*. Paris: OECD.

③ 기타

김성배. 20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최향섭. 2006.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정책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vans, P. 1999. “Transferable Lessons? Re-Examining the Institutional Prerequisites of East Asian Economic Policies.” In Y. Akyuz. (ed.) *East Asian Development: New Perspectives*. pp. 66-86. London: Frank Cass.

Foucault, M. 1969.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anslated by A. Smith. London: Macmillan.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김지영 (숭실대학교)

편집위원 : 공진성 (조선대학교)

송영훈 (강원대학교)

최권호 (우송대학교)

구교태 (계명대학교)

박한우 (영남대학교)

홍원식 (동덕여대학교)

김병희 (서원대학교)

김지영 (숭실대학교)

안지현 (서울대학교)

최영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 22 집 2호 (2019)

2019년 12월 15일 인쇄

2019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 황준성

편집인 / 김지영

발행처 / 숭실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9

TEL: (02) 820-0844

FAX: (02) 820-0835

E-mail: iss@ssu.ac.kr

편집·인쇄 / 진흥인쇄랜드

TEL: (02) 812-3694

非賣品

편집간사 : 김다희 (숭실대학교)